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336394

2020년 8월
석사학위 논문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 개발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이 희 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 개발

Development of Preliminary Competency Model
for Art Therapists

2020년 8월 28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이 희 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 개발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디자인학과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미술치료전공

이 희 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희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임 채 형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박 상 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조 윤 성 (인)

2020년 8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목적 ····· 4

제2장 이론적 배경 ····· 5
제1절 미술치료사 ····· 5
1. 미술치료의 개념 ····· 5
2. 미술치료사의 역할 ····· 5
제2절 역량모델링 ····· 8
1. 역량의 개념 및 정의 ····· 8
2. 역량모델 ····· 11
제3절 선행연구 동향 ····· 14
1. 미술치료사 역량 관련 연구 ····· 15
2. 교육 및 서비스 분야 역량모델 관련 연구 동향 ····· 16

제3장 연구방법 ····· 18
제1절 연구절차 ····· 18
제2절 연구대상 ····· 19
1. 심층면담 대상자 ····· 19
2. 델파이조사 대상자 ····· 20
제3절 자료수집 ····· 20
1. 문헌고찰 ····· 2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전문가 심층면담 ·····21
3. 델파이조사 ·····22
제4절 자료분석 ·····22
1. 귀납적 범주 분석 ·····22
2. 내용 타당도 분석 ·····23

제4장 연구결과 ·····25
제1절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 구안 ·····25
1. 이론지식 역량요인 도출 ·····25
2. 직무수행 역량요인 도출 ·····28
3.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 도출 ·····36
제2절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의 타당성 검증 ·····40
1. 이론지식 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결과 ·····40
2. 직무수행 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결과 ·····41
3. 태도 및 자질 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결과 ·····45
제3절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 완성 ·····49
1. 이론지식 예비 역량모델 완성 ·····49
2. 직무수행 예비 역량모델 완성 ·····50
3. 태도 및 자질 예비 역량모델 완성 ·····53

제5장 논의 ·····56

제6장 결론 및 제언 ·····61

참고문헌 ·····6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3-1>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 ····19
<표 3-2> 델파이조사 대상자 특성 ····20
<표 3-3> 심층면담 질문 내용 ····21
<표 3-4> 응답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 ····24
<표 4-1> 미술치료사의 역량군 및 정의(1차) ····25
<표 4-2> 미술치료사의 이론지식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1차) ····26
<표 4-3> 미술치료사의 직무수행 역량요인 및 정의(1차) ····28
<표 4-4> 미술치료사의 직무수행 역량요인별 세부항목 및 정의(1차) ····28
<표 4-5> 미술치료사의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 및 정의 ····36
<표 4-6> 미술치료사의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별 세부항목 및 정의(1차) ····37
<표 4-7> 이론지식 역량모델의 세부항목 타당성 검증 결과 ····40
<표 4-8> 직무수행 역량요인의 타당성 검증 결과 ····41
<표 4-9> 내담자파악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42
<표 4-10> 중재(치료)계획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43
<표 4-11> 중재(치료)활동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43
<표 4-12> 중재(치료)평가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44
<표 4-13> 행정/관리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45
<표 4-14> 역량요인의 타당성 검증 결과(태도 및 자질 역량군) ····46
<표 4-15> 자기이해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46
<표 4-16> 자기계발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47
<표 4-17> 정서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48
<표 4-18> 이론지식 역량모델의 세부항목 및 정의 ····50
<표 4-19> 직무수행 역량모델의 역량요인 및 정의 ····50
<표 4-20> 내담자파악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51
<표 4-21> 중재(치료)계획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52
<표 4-22> 중재(치료)활동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52
<표 4-23> 중재(치료)평가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53
<표 4-24> 태도 및 자질 역량군의 역량요인과 정의 ····5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5> 자기이해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54
<표 4-26> 자기계발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54
<표 4-27> 정서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5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2-1> 역량 구조의 내면과 표면 ····· 10
<그림 3-1> 미술치료사 예비 역량모델 개발 절차 ····· 18
<그림 4-1> 미술치료사 예비 역량모델 구안 ····· 25
<그림 4-2> 도출된 이론지식 역량요인 ····· 26
<그림 4-3> 도출된 직무수행 역량요인 ····· 28
<그림 4-4> 도출된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 ····· 36
<그림 4-5> 완성된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 ····· 49
<그림 4-6> 완성된 이론지식 역량모델 ····· 49
<그림 4-7> 완성된 직무수행 역량모델 ····· 50
<그림 4-8> 완성된 태도 및 자질 역량모델 ····· 5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Development of a Preliminary Competency Model for Art Therapists

Lee Hee-Sook
Advisor : Cho Yoon-sung, Ph.D.
Dept of Design Art Psychology Therapy
Graduate School of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eliminary competency model for the art therapis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competency factors and sub-items were extra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with 6 art therapists, and constructed a competency model through thematic analysis. In order to the ver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modification and reporting for the nam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structured preliminary competency model,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using Likert 5-point scale and open typed comments section, and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CVR, mean value, mode. When the CVR value is less than .56 and the mean value is less than 4, it is regarded as unqualified and deleted. Open typed comments were actively collected and new competency items were added. Finally, the theoretical knowledge competency group, job performance competency group, qualification and attitude competency group were established. Theoretical knowledge competency group consisted of four categories: psychological treatment knowledge, art knowledge, disability/special education knowledge, and ethical/legal knowledge. Job performance competency group consisted of four competency factors and 21 detailed items, including interviewees comprehension, mediation plans, mediation activities, and mediation assessment. Qualification and attitude competency group consisted of three factors of self-understanding, self-improvement, and emotions, and 10 detailed items.

※keywords : art therapist, competency, competency model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안장애, 기분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조현병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국민이 25%를 넘고(보건복지부, 2017),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심리장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보건복지부, 2016)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백서(여성가족부, 2018)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청소년들 중 12.2%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배주미 등(2010)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문제는 조기에 중재되지 못할 경우 성인기로 이어질 수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 정부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담전문가가 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최근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담심리의 역할이 강조되고 확대되는 실정이다. 심리상담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심리상담사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평가, 교육 및 훈련, 행정, 역량개발, 자기개발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신애, 2009; 김인규, 조남정, 2010; 안금옥, 2009; 이종현, 2005). 특히, 최근에는 내담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사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안보경 등, 2013).

미술치료사는 다양한 매체 중 미술을 활용하는 심리상담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함께 미술을 중재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최근 정신건강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 분야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최선남 등, 2018).

영국에서는 영국미술치료협회(BAAT; British Association of Art Therapists)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교육과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보건전문위원회(HCPC; Health and Care Professions Council)와 함께 미술치료사 자격 부여를 결정하고, 보건전문위원회에 등록된 미술치료사만 인정한다. 영국의 TARGET jobs 사이트에서도 미술치료사에게 요구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주요 기술 중 우수한 예술적 능력과 창조성, 예술을 치료에 활용하는 능력, 효과적인 개인 및 집단 미술치료 진행 능력 등의 미술 관련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최선남 등(2018)에서 재인용함). 미국에서는 표준직업분류(SOC;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미술치료사를 음악치료사와 함께 헬스케어 전문직업군으로 분류하고 미술치료사의 직무를 안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직업관련 정보제공 사이트인 CareerPlanner에서는 미술치료사의 직무로 25가지를 제시하면서 미술치료 세션 구성, 미술치료 프로그램 제작, 미술매체를 사용한 개인 또는 집단 운영, 미술 지식 분야 연구, 미술매체 선택 및 준비, 미술치료 기법 및 과정 교육 등 미술치료 관련 전문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즉, 미술치료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하나로 인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미술치료사가 한국자격중앙협회(2013)에 미술심리상담사라는 명칭으로 등록되고 심리상담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치료사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미술재료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자기표현과 성찰을 하여 변화와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인이다(안승희, 전순영, 2018). 따라서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시 되면서 최근에는 팔방미인형 인재보다는 ‘성과지향적인 역량’ 에 중점을 둔 인재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오헌석, 2007). 초기 역량을 연구한 McClelland(1973)는 역량을 업무성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개인의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으로 평균적인 업무 수행자에 비해 우수한 업무 수행자가 갖는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oyatzis(1982)와 McLagan(1982)은 개인이 직무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 또는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역량을 정의하였다. Spencer & Spencer(1993)도 역량을 우수한 수행을 일으키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underlying characteristic)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역량을 우수한 수행자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한 연구자들과 달리 일반적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는데, Parry(1996)와 Schippmann(1999)은 역량이 업무와 관련되고 개인의 행동적 특징에 기초하며 성과와 관련된 지식, 기능, 특성의 통합된 형태로 측정 가능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현대사회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역량이란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우수한 수행을 발현시키게 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 즉,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동기 등으로 측정 또는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기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게 대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면서, 특정 직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발현시키는 개인의 지식, 기술,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홍민, 2009) 즉,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개발된 역량모델에 의해 역량이 진단되고 평가되어 해당 분야 인적자원의 업무와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심현옥 등, 2011). 그리고 역량모델링은 인적자원의 선발(selection), 훈련 및 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 평가(appraisal), 승진계획(succession planning)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다(Lucia & Lepsinger, 1999).

역량모델링을 위해 중요한 것은 개인의 직무 수행 시 나타나는 행동특성을 과학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파악하고 정교화하는 것이다. 행동특성의 사용목적 및 범위, 대상에 따라 그 절차와 자료수집방법 등이 달라진다(김진모, 2008; 이홍민, 2009). 예를 들면, 역량모델링 과정에서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Boyatzis(1982)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개발 후 검증과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에 Dubois(1993)는 역량이 인사관리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여 조직 구성원의 역량 기반 성과와 조직의 전략을 연결하고, 개발된 역량모델을 반복하여 검증하였다. Spencer & Spencer(1993)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수행효과성 준거 정의에 따라 우수집단과 평균집단을 나누고 행동사건면접, 전문가패널 조사, 설문조사, 과업/직능분석, 직접관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우수한 업무 수행자의 특징에 기초하여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고전적방법을 제시하였다. 역량모델링 방법에 대한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역량모델 개발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역량모델링 과정별로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는 혼합 방법 즉, 기존에 제시되었던 여러 역량모델링 방법들의 혼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사와 교수의 역량(백순근 등, 2007; 박용호 등, 2012; 이대형, 2012), 청소년지도자(장미, 2011), 스포츠지도사(배성우, 2014; 은희관, 2017), 무용 지도자(이진희, 2017)의 역량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상담 분야에서는 조수연과 양미진(2013)이 청소년상담사의 역량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고, 상담, 일반, 교육, 행정, 경영, 연구의 6개 역량군과 21개 역량을 도출하였다.

미술치료 분야에서도 인적자원의 성과를 높이는 과정을 위해 요구되는 미술치료사의 역량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자격중앙협회(2013)에서는 미술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료사의 직무를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개인 심리상담, 집단 심리상담, 매체 심리상담, 심리검사, 교육 및 훈련, 상담행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명선(2013)은 미술치료사의 전문성으로 진단과 치료에서의 미술 활용 능력, 대화에 기초한 실존적 관계 맺음에 중심을 둠, 자기탐구, 자각, 수용을 통한 성숙, 이해에 기초한 돌봄 실천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최선남 등(2018)은 미술치료사, 센터운영자, 교수 등을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미술치료사의 직업적 전문성, 구체적 능력, 체계적 훈련과 자격관리, 자질향상과 성장을 위한 자각 등이 미술치료사의 직무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조용태(2014)는 미술치료사의 핵심능력으로 미술치료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지식습득, 치료관계의 형성과 유지능력의 필요, 중재를 계획하는 능력, 중대를 수행하는 능력, 처치평가와 종결하는 능력, 문화적/윤리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고려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제시하였다. 안승희와 전순영(2018)은 초보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초보 미술치료사의 필요한 역량으로 지식적 역량, 기술적 역량, 태도적 역량에 해당하는 7개 범주와 19개의 개념을 발견하였다. 상기한 연구들은 미술치료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나 초보 미술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제시한 것으로 일반 수행자와 비교되는 우수한 업무수행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역량(competency)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우수한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를 통해 미술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미술치료사의 직무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미술치료사 채용지표의 기초자료설정, 그리고 미술치료사의 능력과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사의 역량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미술치료사의 역량 요인과 세부항목을 도출한다.
둘째, 우수한 미술치료사의 역량 요인과 세부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셋째,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을 완성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미술치료사

1.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란 내담자의 내면적 세계를 미술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미술로 표현하여 치유와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미술과 심리치료가 융합된 새로운 통합체라 할 수 있다(Wadeson, 2012). 이러한 미술치료의 장점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을 미술을 통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아표현을 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1960년대 미국의 Naumburg에 의해 그림을 매개체로 심리치료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임세라, 오가영, 2015). Naumburg는 그림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치료적 관점으로 미술을 강조하면서, 미술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형성, 자유연상, 자발적이고 능동적 그림의 표현과 해석, 그림의 상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Kramer는 미술작업 과정에서 내면적인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되거나 전환된다고 주장하면서, 내담자가 미술작업 과정 중에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술치료사의 역할이 내담자가 만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 과정 그 자체가 치료(Art as Therapy)라고 보았다(장윤화, 2004)[1].

미술치료에서 Naumburg의 치료에 집중한 관점과 Kramer의 미술에 집중한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Ulman에 의해 시도되었고, 미술치료사들의 철학과 개인적 요구 및 목표에 따라 미술과 치료의 입장 중 한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임세라, 오가영, 2015). 특히, Ulman은 Bulletin of Art therapy 창간호에서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미술치료가 독립적인 분야로 발달하게 되었다.

2. 미술치료사의 역할

가. 미술치료사의 의미

1) 장윤화(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미술치료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연구, 2004). 7p. Ulman은 정신분석적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창작활동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술치료 실행에 있어서 그림을 치료의 매체로 이용, 창작활동 그 자체가 치료란 용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술치료는 미술, 내담자, 미술치료사의 3개 요소로 구성되며, 미술치료에서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치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를 통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내담자의 잠재적인 한계와 고통을 미술을 통해서 가능한 진실되고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다. 직업적 의미에서 미술치료사는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의 갈등과 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미술(조형)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치료하는 전문 직업'이다(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업표준사전; http://www.work.go.kr).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미술치료사는 미술을 매개로 기본적인 심리를 파악하고, 창작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루고 정서적인 갈등을 완화시키는 심리치료사로 정의할 수 있다(최명선, 2013). 이와 같이 미술치료사는 학자들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주로 미술을 매개로 하여 내담자의 정서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정서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심리치료전문가로 인식된다.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미술작업을 하는 동안 내담자를 곁에서 지켜보거나 적극적으로 미술활동에 개입하여 말하거나 행동을 하기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 미술치료에서 미술은 미술작업뿐만 아니라 관찰, 상담, 격려, 중재활동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게 단순한 보조자의 역할이 아닌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2)]

나. 미술치료사의 역할

미술치료사들은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창조적 작업을 하도록 돕고 부정적 감정을 현실 수용 가능한 형태로 승화시키도록 도와 자아 발달을 촉진시키고, 미술치료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놀이 능력을 일깨워 재미와 유희성을 느낄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미술치료의 과정 속에서 미술작업이 미술치료사 자신을 인식하는 수단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홍혜정, 장연집, 2003; Fish, 2012; Moon, 2008). 즉, 미술치료사들은 미술작업의 창작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인적 갈

2) 최명선(미술치료사의 전문가 되기 여정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2013년)27p~36p. 미술치료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전문가 양성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활동과 역할은 다양한 학문과 실무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경험들에 대한 질적인 자료의 수집과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미술치료사의 전문성은 미술치료사와 내담자간 질적, 의미적 차원의 상호작용 및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형성과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적 실체로 구성되는 속성을 가진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등을 확인하고 내담자와의 다양하고 풍부한 치료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McNiff, 2004).

미술치료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담자와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관계능력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은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강조되어 왔다(차효정, 2012; McMurray & Schwartz-Mirman, 1998). 왜냐하면 미술치료사들은 미술작업을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치료적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Corey & Corey, 1989). 또한, 치료사의 관계능력과 관계의 질에 의해 미술치료의 성공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연구들(김소연, 2012; 차효정, 2012)에 따르면, 치료사의 경험과 대인관계 성향 등 개인적 특성이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경력이 길고 경험의 양이 많을수록 내담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미술치료를 포함하여 상담치료 영역은 치료사나 상담자 자신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 요인이 치료사의 인격이라고 강조한다(Wadeson, 1987). 치료사의 인격이 성숙하여 자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어 인지적 처리능력에 문제가 없게 된다. 즉, 치료사의 인격적 자질이 인지적 능력에 영향을 주어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사 자신이 다양한 감정표출을 통제하고 자기이해 능력이 높아야 미술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Wadeson(1987)은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의 두 가지를 주장하였다.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자질로 첫째, 미술치료 이론, 정신병리, 장애,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인간학, 심리학, 철학, 교육학, 사회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는 것, 둘째, 미술치료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진단과 평가에 대한 지식과 미술표현을 위한 매체의 사용, 기법, 적용에 대한 이해, 셋째, 미학, 미술사적인 지식, 작품 해석 능력, 색과 형태에 대한 상징적 의미 이해, 넷째, 내담자 욕구 인식과 내담자와 상호관계를 위한 소통능력, 다섯째, 지속적 슈퍼비전을 통한 자기이해와 성숙, 미술치료사로서 윤리적,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지키려는 태도이다.

인성적 자질로는 첫째, 겸손함, 고요함, 온화함, 인내심, 안정감, 성실성, 진심에서 나온 행동과 열정, 둘째, 자기신뢰, 자기존중, 자기수용, 셋째,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할 수 있는 공감능력, 넷째, 개방적인 태도와 유머감각, 직관력, 통찰력, 다섯째, 예술작업 수행능력, 창의성, 유연성, 탄력성, 여섯째, 감정 소통을 위한 대화능력, 책임감과 자율성이다. 미술치료사는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 깊게 듣고 예리하게 분석해야 하며, 내담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분류하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추어야 한다(최명선, 201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역량모델링

1. 역량의 개념 및 정의

역량(competency)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되지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역량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된다. 역량이라는 개념을 학문적 논의에 처음 도입한 연구자는 White(1959)로 역량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역량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았고, 성숙이나 욕망, 본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선택적이고 지속적이며, 유목적인 동기적 특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심리학자인 McClelland(1973)에 의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지능검사나 성취도 검사들이 실제로 조직에서 업무의 성과나 인생의 성공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적인 업무 수행자와 차별되는 우수한 업무 수행자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역량에 대한 연구는 McClelland(197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심리, 교육, 경영, 정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실무적인 분야로 급속하게 적용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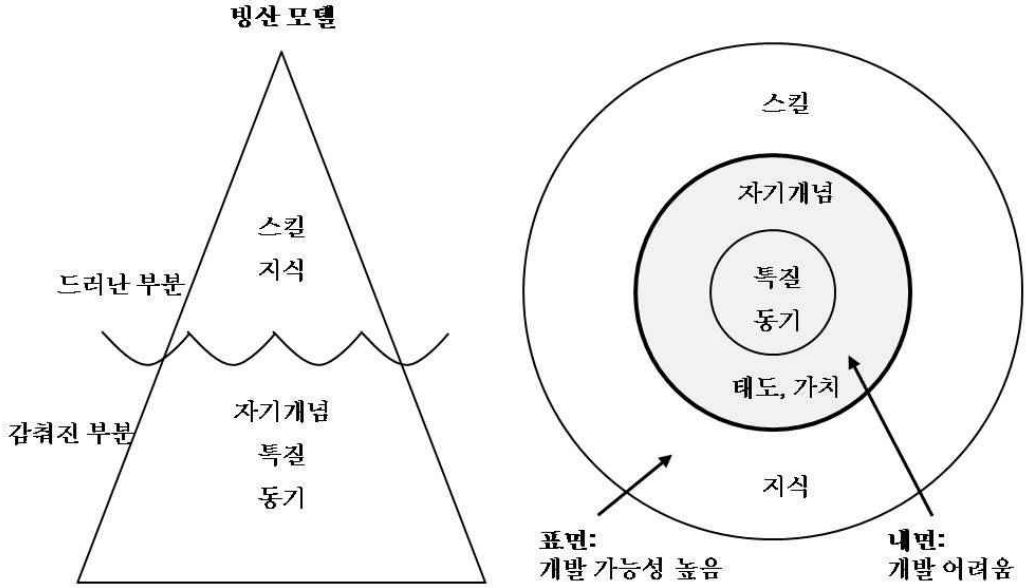
역량을 정의하면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McClelland(1973)는 역량을 '업무 성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 그리고 평균적인 수행자와 우수한 수행자를 구별하는 차별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Klemp(1980)는 직무 역량을 '직장에서 효과적이거나 우수한 성과를 가져오는 사람의 기저에 있는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Boyatzis(1982)는 우수한 관리자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업무에서도 일관적으로 발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일반역량(generic competencies)을 규명하면서, 역량을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라 정의하였다. McLagan(1989)은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으로 정의하였고, Spencer & Spencer(1993)는 우수한 수행을 발현시키는 개인의 내적 특성(underlying characteristics)으로 역량을 정의하였다. 강석주(2004)는 특정 조직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역량은 우수한 수행자의 내재적 특성 또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의 기저에 있는 특성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량을 우수한 성과자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의한 학자들도 적지 않다. Parry(1996)는 역량이 지식과 기능, 특성의 통합된 형태로, 개인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측정 가능하면서 교육을 통해 향상 가능하다고 하였다. Fletcher(1991)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무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Corbin(1993)은 바람직한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유사하게 Schippmann(1999)은 역량을 측정 가능하고, 업무와 관련되고 개인의 행동적 특징에 기초한 특성 또는 능력이라 하였고, Green(1999)은 직무 목표 달성에 사용되는 측정 가능한 업무 습관 및 개인적 기술에 대한 증거 자료로 정의하였다. 조직의 미션 및 전략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김진모(2001)는 상기한 역량의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면, 역량은 우수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으로 측정 또는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된다.

Spencer &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underlying characteristics)으로 정의하였고, 역량이 동기(motives), 특질(trait), 자기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등 5가지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동기는 개인이 일관되게 마음에 품고 있거나 원하는 어떤 것으로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특질은 신체적인 특성, 상황 또는 정보에 대한 일관적 반응이다. 자기개념은 태도, 가치관, 또는 자기상(Self-image)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지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이며 기술은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McClleland의 빙산 모델(그림 Ⅱ-1)에 의하면, 동기와 특질, 자기개념은 내면적 역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개발하기 어렵다. 반면, 지식과 기술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 역량으로 개발하기도 비교적 쉽다고 설명하면서, 동기, 특질, 자기개념에 의해 지식과 기술이 발현되므로, 사람을 선발할 때에는 표면적인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내면적인 동기, 특질, 자기개념과 같은 역량이 기준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Spencer & Spencer, 199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2-1> 역량 구조의 내면과 표면

*출처: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New York: Wiley. 민병모, 박동건, 박종구, 정재창(역)(1998).

이외에도 역량은 동기나 특질, 자기개념과 같은 의도(intent)가 포함되어 인과 관계적 특성을 갖는다. 인과관계 특성이란 지식이나 기술적 역량은 의도가 없이 발현되지 않으며, 동기, 특질, 자기개념이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역량은 준거참조(criterion reference) 특성도 갖는데, 준거참조 특성이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진 지식, 태도, 동기 등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역량이 그 개인의 수행능력을 예측하게 하는 준거가 된다는 것이다(Spencer & Spencer, 1993). Spencer & Spencer(1993)가 설명한 역량의 개념을 정리하면, 역량은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 등 개인이 지닌 내적인 특성으로 가시적, 비가시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며, 지식과 기술의 표면적 특성과 동기, 특질, 자기개념의 내면적 특성들이 행동으로 발현되면서 결과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행을 준거로 삼을 때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경(2002)은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역량의 구성요소를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하였다.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역량은 무엇인가를 안다는 지식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고, 실제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 습득된 업무 스킬이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략, 절차에 대한 체험적 능력이 없으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업무에 대한 열성과 헌신, 긍정적 자세와 같은 태도가 없으면 성과를 창출해 내기 어렵다고 보았다. 윤정일 등(2007)에 의하면, 역량은 본질적으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기술과 같은 가시적 측면과 동기, 특질, 태도와 같은 비가시적 측면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총체적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구체적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들을 통해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학습 가능한 능력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재경(2002)과 윤정일 등(2007)의 역량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할 때 역량은 '특정한 과제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와 같은 총제적인 수행 관련 능력 및 학습 가능한 능력' 이라 할 수 있다(안승희, 2018).[3)]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역량의 개념 및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역량을 미술치료사가 미술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론지식과 수행에 관련된 기술이나 노하우, 바람직한 태도 및 개인의 자질 등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로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업무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 또는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우수한 미술치료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이론지식과 직무수행 능력, 개인의 태도 및 자질을 의미한다.

2. 역량모델

역량모델(competency model)은 '특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식, 가치 및 행동을 기술하여 체계화 해놓은 것' 이다(McLagan, 1996). 또한 조직의 내·외적 환경들과 조직 내 개인의 역할 및 책임, 상호관련성들을 고려한 가운데, 만족스럽거나 특별한 업무 성과 달성에 필요한 역량들을 포함하는 것이다(Boyatzis, 1982). 특정 직무에서 행동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연구자마다 약간씩 입장을 달리하지만, 역량모델 개발을 통해 특정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행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주인, 2000).

역량모델 개발을 통해 특정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다. 즉, 역량모

3) 안승희, 전순영(초보 미술치료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역량, 예술심리치료연구 제14권 제3호, 2018), 257~259p, 미술치료사의 역량을 19개의 개념과 7개의 범주, 3개의 주제로 도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초보 미술치료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델을 개발함으로써, 선발(selection), 교육훈련과 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 평가(appraisal), 승진계획(succession planning)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됨으로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다(Lucia & Lepsinger,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치료사의 역량모델이란 미술치료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갖추어야 할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구조화하고 체계화한 역량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4)]

가. 역량모델링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인 역량 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은 특정한 직무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McLagan, 1989)이고, 이러한 직무나 역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다(Dubois, 1998).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목적은 전통적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동일하지만(박신윤, 이찬, 2011), 그 절차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주장되고 연구되었다.

Boyatzis(1982)는 직무의 미션(mission) 기술, 직무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산출물 규명, 대상 직무의 과제 정리, 지식(knowledge)/기술(skill)/태도(attitude)를 규명, 관련성이 높은 지식·기술·태도를 묶어 역량으로 명명, 각 역량의 개념을 실제 현장에 맞도록 정의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Dubois(1993)는 역량모델 개발의 절차로 첫째, 직무 구성요인과 우수한 직무 성과자의 요건 조사, 둘째,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직무 역량 모델 구성, 셋째, 구성된 모델의 검증(연구 반복을 통한 유사한 대안적인 연구 실시 및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정)을 주장하였다.

Spenser & Spenser(1993)의 고전적 방법의 역량모델 개발은 수행 효과성의 준거 정의, 우수자 집단과 평균집단의 준거 집단 선정, 자료 수집(행동사건면접, 패널 활용, 설문조사, 전문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찰), 우수한 업무수행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역량모델 개발, 행동사건면접 및 시험과 평가 등을 통한 역량 모델 검증, 검증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준비의 절차로 진행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Spenser & Spenser(1993)는 역량모델 개발의 단축형 절차로 첫째, 전문가 패널을 통한 역량 규명,

4) 전숙영(방카슈랑스 교육전문가의 역량에 대한 인식 비교, 2015)9-15p. 역량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언급되고 있으며, 연구자별 역량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행동사건면담, 셋째, 데이터 분석 및 역량 모델 개발, 넷째, 역량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제안하였다. Lucia & Lepsinger(1999)는 자료수집방법 결정, 인터뷰, 포커스 그룹 미팅, 업무 관찰, 자료분석 및 잠정 역량모델 개발, 잠정 역량모델 검증, 새로운 자료분석 및 역량모델 개선, 타당도 검증 및 모델 완성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역량모델 개발의 절차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수한 직무 성과자의 역량 정의, 우수한 집단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수집, 자료분석 및 역량모델 개발, 역량모델 검증의 순서로 요약될 수 있다.

나. 역량모델링 자료수집 방법

역량모델링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행동사건면접, 전문가 패널, 설문조사, 컴퓨터 기반 전문가 시스템, 과업/직능 분석 방법, 직접 관찰 등이 있다. 첫째, Spenser & Spenser(1993)의 고전적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행동사건면접(Behavioral Event Interview : BEI)은 해당 직무에 종사하면서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직무 수행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설명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역량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행동사건면접 방법은 타당도가 높고 심층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역량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높은 성과를 내는 알고리즘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전문적인 면담자가 필요하며, 다수의 직무를 분석하는데 비실용적인 단점이 있다.[5)]

둘째, 전문가 패널을 이용하는 방법은 조직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성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 전문성이 부족하면 핵심역량 요인을 누락시킬 수 있다. 셋째, 설문조사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며 많은 대상자들에게 조사가 가능하여 결과에 대한 합의 형성이 용이한 반면, 설문조사 시 고려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역량이 누락될 수 있다. 넷째, 컴퓨터 기반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컴퓨터 시스템에 연구자, 상급 관리자,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내에는 과거 축적된 역량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직무별 요구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5) 이홍민(핵심역량 핵심인재, 2009)67p.행동사건면접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제시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방법은 과거부터 축적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단시간에 양질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유용성 여부는 응답의 정확성에 달려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의 문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과업/직능 분석(Job Task/Function Analysis) 방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 수행자의 모든 업무, 기능, 행동들에 대해 설문지나, 일지, 개인 면담, 집단 면접, 직접 관찰 등을 통해 기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직무 수행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직무를 설계하거나 보수 산정을 위한 역량 분석 등의 분야에 사용될 수 있고, 개별 직무 성격을 반영하며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들과 비교하여 수집된 자료를 검증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나치게 직무 자체의 특성에 집중하여 사람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으며, 일상적 활동과 중요한 과업을 분리하기 힘들어 실제 높은 성과가 필요한 중요한 과업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관찰 방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행동에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나 행동사건면접 등의 다른 방법으로 설정한 가설을 직접 확인하고 규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에서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1년에 3~4회 수준으로 적게 발생하므로, 이를 관찰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하면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 미술치료사의 역량모델 개발을 위해 Spenser & Spenser(1993)와 Lucia & Lepsinger(1993)가 제시한 역량모델링 절차를 혼합·적용하여 미술치료사의 역량을 도출하였다. 심층적이고 타당도가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행동사건면접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행동사건면접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동향

미술치료사의 역량모델 개발을 위해 미술치료사의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기존 미술치료사의 역량 관련 선행연구는 충분하지 않아 본 장에서는 교육・관리・상담・서비스 직종 분야의 역량 및 역량모델과 관련된 연구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미술치료사 외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역량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미술치료사 역량 관련 연구

안승희와 전순영(2018)은 초보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직무에서 어려움과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술치료사의 역량 도출을 위해 안승희와 전순영(2018)은 경력 3년 이하의 초보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FGI에서 수집된 자료를 귀납적범주분석을 통해 4개의 어려움 주제에서 11개 범주와 28개 개념을 도출하였고, 지식, 기술, 태도의 3개 역량 주제와 7개 범주 및 19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식적 역량은 '치료사의 자기이해' 범주의 3개 세부항목, 기술적 역량은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 제공', '직관력 개발', '대외적 전문성', '치료사를 위한 공동체 형성 능력' 범주의 11개 세부항목, 태도적 역량은 '치료사 자신에 대한 격려', '치료사로서의 끊임없는 경험' 범주의 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최선남 등(2018)은 미술치료사 양성을 위해 직무분석을 연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미술치료사에게 필요한 능력, 미술치료사 교육 및 훈련내용,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미술치료사, 미술치료 관련 센터 운영 센터장, 미술치료학과 전공 교수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미술치료사의 직무로 6개 주제의 22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6개 주제는 '미술치료사의 직업적 전문성 소지', '미술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미술치료사의 구체적 능력 요구', '미술치료 교과목의 체계화', '미술치료사의 체계적 훈련과 자격관리', '미술치료사 자질향상과 성장을 위한 자각 필요'이다. 직무분석 내용 중 '미술치료사의 구체적 능력 요구'의 세부항목이 미술치료사의 역량과 관련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내담자 치료 능력', '행정적 능력', '미술치료실 관리 능력', '치료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미술매체에 대한 창조성과 유연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민감성' 항목이다. 마지막 주제로 도출된 '미술치료사 자질향상과 성장을 위한 자각 필요'는 미술치료사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요구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술치료사로서의 정체성 유지', '미술치료사 자신에게 깨어있음의 필요', '미술치료사 자신이 홍보의 주체' 항목이다.

김갑숙, 이근매, 정현희(2018)는 미술치료사의 역할을 탐색하고 미술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미술치료사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차이를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술치료사의 역할관련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미술치료사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술치료사의 역할은 ‘치료 및 연구능력’, ‘인간권리존중’, ‘중재’, ‘전문적 역량’, ‘교육’, ‘심리평가’, ‘사례연구’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치료 및 연구능력’ 영역은 관계 맺기 능력, 치료개입능력, 미술활용능력, 연구능력의 4개 항목, ‘인간권리존중’ 영역은 다양성인정, 이중관계, 사생활보호의 3개 항목, ‘중재’ 영역은 내담자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기관간의 관계,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의 4개 항목, ‘전문적 역량’, ‘교육’, ‘심리평가’, ‘사례연구’ 영역은 하위항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는 미술치료사가 미술치료사의 역할 중 내담자와의 관계 맺기 능력과 치료개입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교육자 역할과 심리평가자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즉, 미술치료사들은 미술치료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판단된다.

2. 교육 및 서비스 분야 역량모델 관련 연구 동향

미술 분야 외에 미술치료사와 직무 특성이 유사한 교육, 관리, 상담, 서비스 분야의 역량 및 역량모델링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박용호 등(2012)은 중등교사의 직무역량으로 대인관계, 교과 전문성, 학생이해, 교수학습, 의사소통, 상담, 행정/경영의 7개 역량 군으로 세부항목들을 범주화하였다. 서명희(2014)는 중등학교 학생부 교사의 역량으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상황대처, 업무지식, 상담, 자기관리, 행정 및 경영, 인성적 자질의 7개 역량 군을 도출하였다. 체육교사 역량에 대해서 이대형(2012)은 올바른 체육교사는 ‘품성’, ‘자질’, ‘전문능력‘을 지녀야 하며,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체육교사와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체육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경석(2014)은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반성이 교수역량, 교수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교수역량은 체육수업 반성과 교수 자신감 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교사 외에 체육분야 지도자의 역량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배성우(2014)는 생활체육 스포츠지도사의 역량으로 지식적 역량 25개 요인의 표면적 역량군과 자기조절, 전문성 등 32개 요인의 내면적 역량 군으로 구분하였다. 은희관(2017)은 스포츠지도사의 지도역량으로 실기전문성, 체육상식, 대화기술, 자부심, 자신감, 동기유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대관계, 커뮤니케이션, 성품, 자기조절 등 36개 요인으로 구성된 전문성, 심리적 안정, 사회적 소통, 인성형성 역량 군을 도출하였다. 추종호(2017)는 체육지도자 역량으로 전문성 역량(수업능력, 건강관련 지식, 체육 전반적 지식), 지도신념 역량(목표의식, 자신감, 가치관), 자기조절 역량(개인관리, 감정조절), 사회적 역량(대인관계, 팀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이호훈(2017)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지도역량으로 4개의 대영역(지도기술전문성, 동기부여, 감정이해, 커뮤니케이션)과 10개의 중영역(수업지도전문성, 건강전문지식, 체육에 대한 지식, 목표설정관리, 지도 자부심, 전달능력, 노인존중, 감정조절, 소통, 대인관계)을 도출하였다.

기업의 서비스·관리직의 역량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김미영(2013)은 기업의 비서 직무역량으로 19개 역량 요인들이 지식, 기술, 태도 역량 군으로 범주화하였다. 박신윤과 이찬(2011)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역량으로 25개 역량 요인들을 도출하여 기본, 직무, 리더의 3개 역량 군으로 범주화하였다. 한승완(2013)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 요인 17개를 직무, 관계, 기본의 3개 역량 군으로 도출하였다. 진주현(2006)은 표준역량으로 10개의 요인을 지식 및 기술, 판단 및 사고능력, 대인능력, 업무태도, 업적 및 기여도의 5개 역량 군을 도출하였다. 김현숙과 봉형철(2010)은 액션러닝코치의 역량을 경청, 질문, 동기부여, 분위기 조성, 관찰, 갈등관리, 회의진행, 문제해결지원, 성찰촉진, 피드백으로 10개의 역량 군과 36개의 행동지표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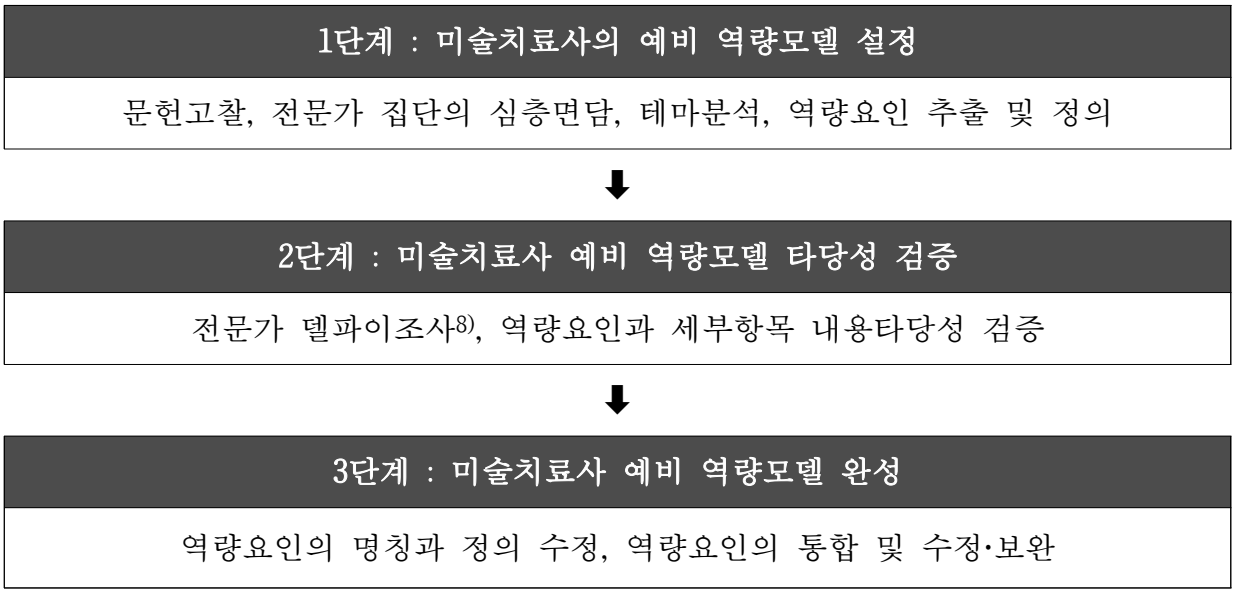
상담자의 역량 연구로 남현주(2014)는 기업 내 상담자의 역량으로 13개 요인으로 구성된 이론지식, 태도·개인자질, 직무수행의 3개 역량 군을 도출하였다. 조수연과 양미진(2013)은 청소년상담사의 역량으로 21개 요인으로 구성된 상담(상담지식, 상담전략 및 기술, 사례관리, 위기관리, 심리검사), 일반(청소년이해, 의사소통, 윤리, 자기관리), 교육(일반교육연수, 상담자교육 및 슈퍼비전), 행정(행정실무, 재무관리), 경영(리더십, 팔로워십, 고객만족, 마케팅, 경영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연구(연구설계 및 수행, 연구보고서 작성 및 평가)의 6개 역량 군을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간호사의 역량으로 강윤숙 등(2008)은 16개 요인으로 구성된 과학적, 윤리적, 인격적, 심미적 지식 군을 도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절차

본 연구는 Spenser & Spenser(1993)의 고전적 연구[6]와 Lucia & Lepsinger (1993)[7]가 제시한 역량모델 개발 절차를 혼합·보완하여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3-1>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3-1> 미술치료사 예비 역량모델 개발 절차

<그림 3-1>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미술치료, 상담치료, 역량,

6) Spencer & Spencer(1993)의 고전적 연구방법: 수행효과성 준거정의, 준거집단 선정(우수집단과 평균집단), 우수성과자의 특성조사(행동사건면접), 역량모델 개발(우수성과자 특성 중심으로), 역량모델 검증(행동사건면접, 시험, 평가)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으로 핵심직무에 대한 역량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로 이용됨

7) Lucia & Lepsinger (1993)의 새로운 역량모델 개발 방법: 자료수집방법 결정, 전문가 인터뷰나 포커스그룹 미팅, 자료분석 및 잠정역량모델 개발, 설문조사, FGI, 새로운 자료분석 및 역량모델 개선 등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특정한 역할이나 조직에 맞는 결과 산출가능

8) 델파이방법(delphi method)은 미래에 대해 예측하려는 어떤 주제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단을 수렴하는 조사방법이다. 참고문헌은 이종승(2009). 연구방법론. 파주: 교육과학사. p. 276-27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량모델 등을 주제어로 국내·외 논문, 단행본, 인터넷문헌 등을 고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과 심층면담 인터뷰 내용을 테마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미술치료사의 핵심 역량요인과 세부항목들을 도출하고 정의하였다.

둘째,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설정한 예비 역량모델을 토대로 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미술치료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역량요인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델파이조사 자료분석 결과에서 내용타당도 비율(CVR)이 기준치 미만이거나, 평균값이 4 미만인 항목은 삭제하고, 개방형 의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의 회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서 역량요인과 세부항목들을 통합 및 수정·보완하여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을 완성하였다.

제2절 연구대상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 개발을 위해 전문가 심층면담과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심층면담 대상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은 미술치료사의 역량요인 및 세부항목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행동사건 면접방식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자는 미술치료사 경력 5년 이상이면서 우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

대상자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센터운영	직위	자격증
미술치료사1	여	71세	박사	20년	0	센터장	미술치료
미술치료사2	여	53세	석사	13년	0	센터장	미술치료
미술치료사3	여	36세	석사	10년	×	치료사	미술치료
미술치료사4	여	59세	박사수료	11년	0	겸임교수	미술치료
미술치료사5	여	47세	박사	11년	0	시간강사	미술치료
미술치료사6	여	60대	박사수료	13년	0	센터장	미술치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델파이조사 대상자

문헌고찰과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설정된 미술치료사 예비 역량모델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집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것이다(이종성,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조사 대상자로 미술치료사이면서 관련 석사 학위 이상으로 설문조사에 동의한 12명을 선정하였다. 델파이조사 참여 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3-2>와 같다.

<표 3-2> 델파이조사 대상자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여자	12	100
최종학력	석사	6	50
	박사수료	4	33.3
	박사	2	16.7
경력	5년	5	41.6
	6 ~ 10년	4	33.3
	11 ~ 15년	2	16.7
	15년 이상	1	8.3

<표 3-2>에 의하면, 성별은 여자 12명이었고, 경력은 5년 미만 5명, 10년 미만 4명, 15년 미만 2명, 15년 이상 1명이었다. 최종학력은 석사졸업 6명, 박사수료 2명, 박사졸업 2명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석사졸업 이상으로 하였다.

제3절 자료수집

문헌고찰과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추출된 역량요인 및 세부항목의 조작적 정의와 구조화 단계를 거쳐 델파이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검사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

미술치료사의 역량요인 도출을 위해 미술치료, 미술치료사, 역량, 역량모델 등을 주제어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기존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역량 군(이론지식 역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량 군, 직무수행 역량 군, 자질 및 태도 역량 군)을 구성하였으며, 역량 군별로 역량 요인을 구성하였다.

2. 전문가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준비한 질문에 기초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도 깊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 질문지 외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하였고, 대상자의 미술치료가 내담자에게 성공적이었던 경험에 대해 면담하는 행동사건면접(BEI)[9] 방식을 적용하였다. 반구조화[10]된 심층면담 질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3>과 같다.

<표 3-3> 심층면담 질문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질문 전 단계	자기소개, 연구목적 설명, 녹음관련, 익명성 보장 등의 설명, 라포(rapport)형성
배경	미술치료사 경력, 동기 등
배경 및 주질문	- 미술치료사란 무엇인가요? - 미술치료사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미술치료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미술치료사로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미술치료사의 직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 미술치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술치료사 경험 중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미술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적 차원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실기적 차원의 역량은 무엇이 있나요? -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 인성, 윤리,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그 외 미술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9) 행동사건면접(Behavioral Event Interview): Flanagan(1954)의 중요사건기법(critical incident technique)에 기반하여 개발된 특별한 형태의 면담방식(Boyatzis, 1982;Spencer & Spencer1993)이다. 참여자가 직무 상황에서 경험했던 중요사건(성공 사례, 실패 사례)과 관련해 자신이 취했던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생각, 감정, 결과 등을 진술하도록 하는데 면담의 초점이 있다. 개인의 실제 직무수행 해동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역량평가 및 역량모델링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조용환 2009).

10) 조용환(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2009)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미리 만들어진 면담지를 사용하지만, 면담과정에서 질문 방식 및 내용에 있어 융통성을 갖는 방식으로 참여자의 답변과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 내용, 방식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층면담은 미술치료사의 역량요인과 세부항목들을 도출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12명의 미술치료사와 초점집단면접[11] 또는 1:1심층면담을 진행하고 내용을 녹취한 후,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테마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역량요인과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추출된 역량요인을 구조화하여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을 설정하였다.

3. 델파이조사

심층면담 결과를 테마분석하여 도출한 미술치료사 역량의 하위요인과 세부항목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 방법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재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 도출된 요인의 타당성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검증하는데 활용된다.

본 연구는 2019년 10월과 11월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미술치료사 예비 역량모델의 하위요인과 세부항목의 구성과 정의에 대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타당하다’(5점)까지의 폐쇄형 질문과, 추가할 역량이나 통합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역량 등 전문가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개방형 의견란을 포함하였다.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응답 평균이 4.0 미만이거나, CVR값이 전문가 수에 따른 최소값 기준에 미달한 항목은 삭제하고, 항목의 통합 및 세분화, 수정 및 추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제4절 자료분석

1. 귀납적 범주 분석[12]

11)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특정 연구와 관련 있는 참여자들로 구성된 ‘일정규모의 집단(6~10)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 방식이다.

12) 조용환(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2009) 귀납적 접근(data-driven approach은 기존의 문헌에 근거하여 구성개념을 정의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위요소와 측정 문항을 도출한다.
연역적 접근(theory-driven approach)은 기존의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 개념의 하위요소를 정의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측정 문항을 개발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문가와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역량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귀납적 범주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Braun & Clarke(2006)가 제시한 테마분석[13]의 절차를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둘째,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분석해서 의미 있는 내용(역량요인 및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각 역량요인 및 세부항목의 이름을 결정하고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14]하였다. 넷째, 도출한 세부항목을 하위역량요인으로 구성하고 각 요인을 역량 군(competency group)별로 분류하고 검토하여 예비 미술치료사의 역량모델을 설정하였다.

2. 내용타당도 분석

예비 미술치료사 역량모델의 하위요인 명칭과 조작적 정의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비율(CVR : Content Validity Ratio), 평균값, 최빈값,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델파이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Likert 5점 척도의 경우, 문항에 대한 응답평균이 3.75 이상일 때, 그 문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엄격한 평균값 4.0 미만이거나 CVR이 .56 미만인 문항은 삭제하였다. Lawshe(1975)가 제시한 패널수에 따른 최소한의 CVR 기준값에 의해 CVR이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패널의 수가 12명일 때, CVR의 최소 기준은 0.56이므로 그 이상의 값이 되어야 타당한 문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 응답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은 <표 Ⅲ-4>와 같다.

13) 테마 분석은 자료 안에 있는 테마(패턴)을 규명, 분석, 보고하기 위한 방법(Braun & Clarke, 2006)이다. 1970년대 하나의 접근으로 명명된 후(Merton, 1975),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버전이 제시되었다(Aronson, 1994; Attride-Stirling, 2001; Boyatzis, 1998; Joffe & Yardley, 2004; Tuckett, 2005; Braun & Clarke, 2006). 테마분석은 다른 질적 접근(e.g. narrative analysis, discourse analysis)과 달리, 다양한 연구목적과 접근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적 자료 분석 방법/기술로 볼 수 있다(Braun & Clarke, 2006).

14) 조용환(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2009)조작적 정의란 개념적 정의를 경험으로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개념적 정의는 어떤 개념에 대해 다른 개념을 이용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4> 응답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

응답자 수	CVR 최소값
10	.62
12	.56
14	.51
15	.49
20	.42
25	.37
30	.33
35	.31
40	.29

자료원 : Lawshe(1975)

CVR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ne는 '타당하다'라고 응답한 사례 수다.

$$CVR = \frac{ne - \frac{N}{2}}{\frac{N}{2}} \qquad \text{(공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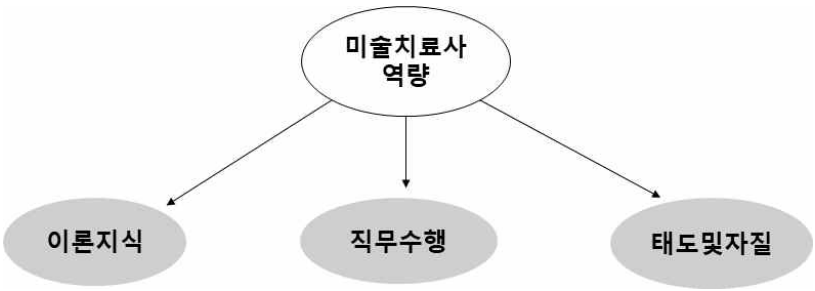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 구안

본 연구에서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은 역량 군, 역량요인, 세부항목의 위계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미술치료사의 잠정적인 역량모델 개발을 위해서 선행연구 고찰과 우수한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으로 세부항목을 도출하고 테마분석으로 역량요인을 도출하였다.

1차로 개발된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은 <그림 4-1>과 같이 3개의 역량 군 즉, 이론지식, 직무수행, 태도 및 자질 역량 군으로 분류하였고, 역량군의 조작적 정의는 <표 4-1>과 같다.



<그림 4-1>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 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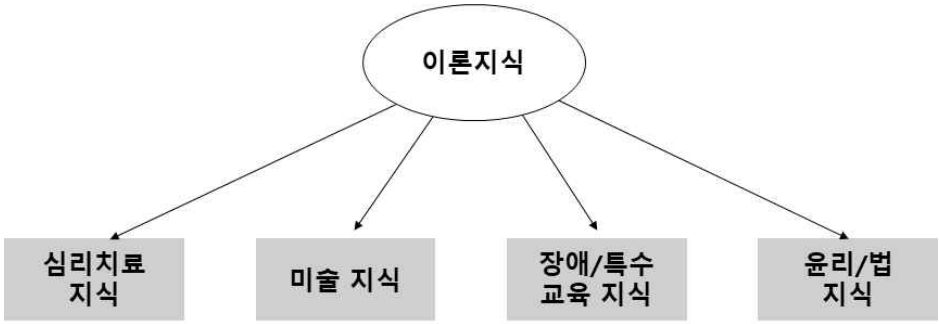
<표 4-1> 미술치료사의 역량 군 및 정의(1차)

역량 군	정의
이론지식	미술치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지식 역량
직무수행	미술치료 과정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역량
태도 및 자질	미술치료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갖추어야 할 태도 및 품성

1. 이론지식 역량요인 도출

개발된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에서 이론지식 역량요인 세부항목은 <그림 4-2>와 같고, 세부항목별 조작적 정의는 <표 4-2>와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2> 도출된 이론지식 역량요인

<표 4-2> 미술치료사의 이론지식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1차)

역량 군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이론지식	심리치료지식	상담지식, 심리치료 및 검사 지식
	미술지식	미술관련 전문지식
	장애/특수교육 지식	장애인과 특수교육 전문지식
	윤리적/법적 지식	심리상담 관련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

<표 4-2>에 의하면, 문헌고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한 이론지식 역량군은 상담/심리지식, 미술지식, 장애/특수교육 지식, 윤리적/법적 지식 등 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우수한 미술치료사는 이론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내담자를 중재(치료)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론지식 역량군의 세부항목 도출을 위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담/심리지식-상담지식】

“오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보통 일반치료 선생님들이 반구조화 하라고 해서 애초에 큰틀은 갖고 있되, 예를 들어 뭐 행동요법 하겠다. 이런 컨트롤 갖고 있되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아이가 그날은 이걸 절대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애들 수용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이론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치료기법은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잘 맞는 상담기법을 충분히 알고 숙지하고 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이상 면담대상자 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담/심리지식-심리치료 및 검사 지식】

“우리가 미술치료사가 인지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데 우리 영역이 아닌 심리치료 영역까지도 우리는 알아야지... 언어치료사가 언어치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심리를 들여다봐야 더 잘 해요.

“인간중심으로 어떻고 뭐 이런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를 할 때 그때는 매칭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임상을 해보고 하면서 아! 이건 보이네 하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대상자가 오면 논문을 먼저 찾아 봐요. 어떤 이론에 해당되는 건지? 내가 치료를 할 때 그럼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되는 건지?” (이상 면담대상자 2)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죠. 일단은 전문적인 거 심리학적인 지식 바탕이 되어야”

“일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요. 왜냐면 뒷장에 아이들은 이런 행동 문제가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 행동수정기법 또 알아야 되고, 치료사들이 잘 모르거든요 “ (면담대상자 5)

“심리학적인 탄탄한 이론 그리고 실무에 필요한 거 얘기했을 때 부모가 이런 면담 할 수 있는 면담에 관련된 자식 그다음에 검사하고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질 “ (면담대상자 5)

【미술지식】

“어떻게 얼마나 트레이닝 했는가가 그림분석능력을 좌우하게 돼요.” (면담대상자 1)

“집중을 기르기 하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가 뭐 이렇게 쭉 있어 그러면 동그라미는 주황색으로 변해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규칙을 만들게 되죠.” (면담대상자 2)

“작품을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내담자와 활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거 같아요 “ (면담대상자 5)

【장애/특수교육 지식】

“품행장애를 알고 있는 친구를 치료를 할 때 분명히 또 더 확고한 나만의 뭔가 있어야 내가 피드백을 적절하게 줄 수 있다.” (면담대상자 2)

<윤리적/법적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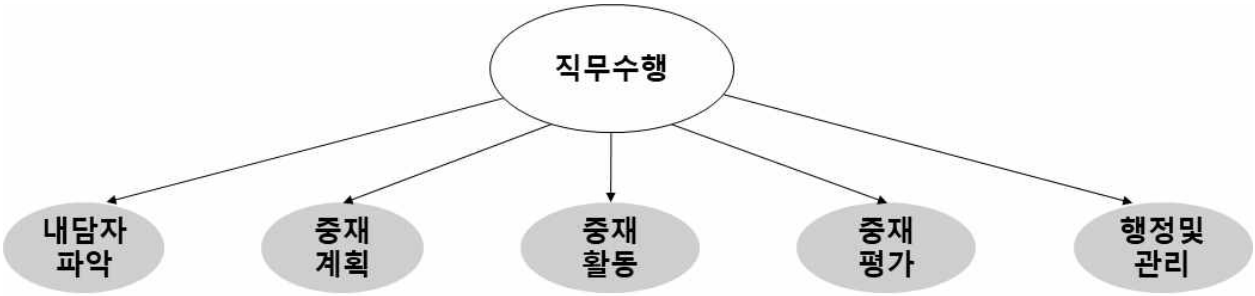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밖에 나가서 비밀보장” (면담대상자 2)

“어머님 국가에서도 심리치료를 지원해주는데 2년 지원을 해준 이유는 아이가 이런 ADHD행동 문제를 보일 때 2년 정도를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2년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도 지금 6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걸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해요. “ (면담대상자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직무수행 역량요인 도출

개발된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에서 직무수행 역량요인은 <그림 4-3>과 같고, 조작적 정의는 <표 4-3>과 같다.



<그림 4-3> 도출된 직무수행 역량요인

<표 4-3> 미술치료사의 직무수행 역량요인 및 정의(1차)

역량군	역량요인	조작적 정의
직무수행	내담자 파악	미술치료 전 내담자의 특성을 관찰하여 파악하는 능력
	중재(치료)계획	내담자의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중재(치료)활동	상담과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내담자를 치료하는 능력
	중재(치료)평가	미술치료 후 내담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능력
	행정/관리	내담자 치료와 관련된 행정업무능력

상기한 <표 4-3>에 제시한 직무수행 역량요인들은 다음에 제시한 <표 4-4>의 세부항목들로 구성되었다.

<표 4-4> 미술치료사의 직무수행 역량요인별 세부항목 및 정의(1차)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내담자 파악	내담자수용	내담자의 주호소, 욕구, 심각정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담자에게 신뢰를 주는 능력
	내담자관찰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내담자의 특성을 통찰력 있게 파악하는 능력
	내담자 정보파악	내담자의 배경과 사전검사 결과를 통해 내담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는 능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내담자특성 분석/판단	내담자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치료목표와 방법을 설정하는 능력
	치료부적합 내담자대처	내담자와 공감 형성이 어려워 치료가 어려운 특성을 가진 내담자를 거절하고 타 치료사로의 연계를 결정하는 능력
	부모상담	내담자의 부모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상담능력
중재(치료) 계획	목표설정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계획수립	내담자의 치료 목표를 위해 치료 방법 및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중재(치료) 활동	상담활용	다양한 상담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내담자를 치료하는 능력
	대화	내담자가 친밀감을 갖도록 대화하는 능력
	표현	내담자의 마음을 이끌어 내도록 진솔하게 표현하여 상담하는 능력
	듣기	내담자가 편안한 상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들어주는 능력
	맞춤형상담	내담자만의 고유한 특성과 상황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하는 능력
	공감 (상호작용)	내담자가 내면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내담자를 기다려주고 도와주면서 인간적인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능력
	위기개입	내담자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는 능력
	미술매체활용	다양한 미술매체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알고, 내담자에 적절한 미술매체를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림해석	내담자의 그림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치료활동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능력
중재(치료) 평가	심리검사 이해	심리검사 관련 전문지식
	심리검사 작성/활용	심리검사를 개발하거나 기존 심리검사를 수정하여 활용하는 능력
	심리검사 분석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행정/관리	보고서작성	관찰일지나 치료일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미술치료실 관리	미술매체 구입과 관리, 미술작품의 보관 능력

가. 내담자 파악

내담자 파악 요인의 세부항목은 내담자 수용, 내담자 관찰, 내담자 정보파악, 내담자 특성 분석/판단, 치료부적합 내담자 대처, 부모상담 등 6개로 아래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출되었다.

【내담자 수용】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극복을 해 봤어 아 이렇게 나도 되네 그러면 내담자한테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경험을 시켜보는 거지 “ (면담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자 2)
“되게 편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공감해주면서 뭔가 조언도 서로 하고 이런 관계가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 (면담대상자 3)
“그 원인이 생기기 전에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해 가면서 아 그럴 수밖에 없을거다 나 같아도 그렇겠다고 공감해주고 “ (면담대상자 4)
“그냥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열고 아이에게 잘해주고 내담자에게 잘해주고 너 잘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두들겨주면 언젠가 나에게 문을 열게 될 거라고 믿고 “ (면담대상자 5)

【내담자 관찰】
“아이들 중에 뮤코다당증(모든 근육 마비 증상 희귀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관찰하는 과정에 아이의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근육을 이용하지 않고도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 (면담대상자 2)
“만약에 그거 가지고 계속 왜 이걸 못 해 왜 이거 안 해 이거 해야 너는 성취감으로... 제가 이렇게 고집을 하고 막 이렇게 갔다면 절대 친해지지 못 했을 거예요. 걔가 좋아하는 게 뭔지 걔가 관심이 뭔지 나랑 얘랑 뭐를 하면 친해질까? 그게 먼저 인간대 인간으로 내가 접근해야 돼요” (면담대상자 3)

【내담자 정보파악】
“미술치료사의 직무는 미술 표현 뿐만아니라 심리분석, 검사도구 사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리를 파악하려면 그림 검사도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검사 도구 사용법 또는 매뉴얼도 잘 알아야 한다. “ (면담대상자 2)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같은 거 수업하기 전에,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활동들을 미리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이 되면 내가 준비활동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죠” (면담대상자 5)

【내담자 특성 분석/판단】
“여기서 이 아이를 그냥 놀 건지 내가 그러면 다른 어떤 실험적인 역할을 또 해 볼 건지 그거는 치료사의 역량이고 임상경험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죠. “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극복을 해 봤어. 아 이렇게 놔도 되네. 그러면 내담자한테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경험을 시켜보는 거지요. “ (이상 면담대상자 2)
“아동이 왔다 그러면 미술치료에서 보면 두 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아이들이 많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
“자폐아이인데 부모님이 아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장애가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저는 경력이 많다 보니까 애가 장애가 있다는 것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늦거나 아니면 그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임상을 꾸준히 쌓이다보면 생기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 (이상 면담대상자 5)

【치료부적합 내담자 대처】
“저도 인간이고 저랑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10년간 겪으면서 아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인정을 하고 정말 힘들면 말씀드려요. “ (면담대상자 3)
“이것 역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라 내 자신에게 기본 자질도 중요하겠지만 아이와 내가 또 맞아야 되는데 이게 한계인거 같아요 “ (면담대상자 4)

【부모상담】
“부모 상담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제가 아무리 이론으로 그거를 해보려고 해도 덮어 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모르잖아 근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하거든요. 자신감이 붙은 거는 이제 나름 낳아봤고 키워 봤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약간 그런 발달 조금 더 제가 맞게 느꼈고 일반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 같이 정말 실질적인 고민이 뭔지 좀 깨달아가는 거예요. “ (면담대상자 3)
“아무래도 일반아동은 어머니 판단에 따라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면담대상자 4)
“아이 상담도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병적인 문제가 아니면 아이 문제는 부모와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머님께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상담을 받아야한다고 계속 어필을 하는 것이 조금은 더 필요해요.” (면담대상자 5)

나. 중재(치료)계획

중재(치료)계획 요인의 세부항목은 목표설정, 계획수립 2개로 아래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출되었다.

【목표 설정】
목표설정 항목은 인터뷰 내용에는 없었지만, 기존 미술치료사 직무분석 연구(최선남 등, 2018)에서 내담자치료능력의 세부항목에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도 중재(치료)계획 요인의 세부항목에 포함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계획 수립】

“내담자를 만나기전에 내담자의 사전정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매체를 미리 해 보고 어떻게 할 건지 매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건지 이기적으로 자극이 될 건지 그 각각의 아이들의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해서 어떻게 매체 개입을 해서 아이한테 하나라도 얻어 가게 해 줘야 한다. “ (면담대상자 2)

“오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보통 일반치료 선생님들이 반 구조 하라고 해서 애초에 큰틀은 갖고 있되 예를 뭐 행동요법 하겠다 이런 컨트롤 갖고 있되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아이가 그날은 이걸 절대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 (면담대상자 4)

다. 중재(치료)활동

중재(치료)활동 요인의 세부항목은 상담활용, 대화, 표현, 듣기, 맞춤형상담, 공감 ,위기개입, 미술매체활용, 그림해석 등 9개로 아래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출되었다.

【상담활용】

“청소년 아이들은 거의 미술을 주제로 해가지고 매체로 이렇게 막 뭐를 하지 않아 거의 상담으로 저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아이의 장점이 뭔지 그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그런 거부터 친해지면서 관계형성 해요. “ (면담대상자 3)

【대화】

“질문을 하죠. 너는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 어떤 부분 색칠할 때 마음이 편했어? 어떤 색깔이 좋아? 정말 예쁘게 잘됐어. 진짜 예쁘구나” (면담대상자 2)

“되도록이면 만나는 애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에너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주로 생각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이렇게 활동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게 해요. “ (면담대상자 6)

【표현】

“제가 모델링을 먼저 하죠. 아 나는 너희 그림을 보고 이렇게 느꼈어 라고 하면 모델링을 보고 애도 따라서 하고 자꾸 자꾸 해 봤더니 잘 하게 되네 너 진짜 잘 하구나 우와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게 필요해요.” (면담대상자 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난 네가 말하길 되게 기다렸었어. 네가 말하지 않는 시간 나 힘들었고 나 되게 외로워. 너를 만나려고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난 얼마나 힘들겠냐. 네가 이렇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죠. “ (면담대상자 3)
” 솔직히 까놓고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막 그 애가 어째서 그랬다고 처음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응 그래 화나겠다. 이렇게 막 얘기 하거든요.” (면담대상자 4)

【듣기】
“반항하고 욕하고 이런데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더 반응을 하니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별로 크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저는 좀 편하게 해 주는 거 같아요. “ (면담대상자 4)

【맞춤형 상담】
“어떻게 내가 해줘야 이 아이가 아 좋아요’ 라고 할지 몰랐고, 매뉴얼대로 상담을 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임상경험에 비추어서 현장감 있는 수업을 받지 못했으며 또 누가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없어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했고 부끄러울 뿐이다. “ (면담대상자 2)

【공감】
“치료 과정 중에 거짓말이 자기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 그러면 다 꺼내 놔라. 자기가 인정 안 하고 싶으면 지금은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한 3개월 됐어요.” (면담대상자 2)
” 진짜 공감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기지 않고 그 둘 사이에 켜져 있어요. 내가 공감능력을 많이 키우려면 들여다보게 되고 들여다봐서 힘들게 여기서 피었네. 기특하네 라고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예쁘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칭찬 하면은요 날개를 달아요.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이런 칭찬을 해 주고 알아차림을 해주고 더 열심히 할 때 많이 옆에 앉아서 너무 잘 하세요 좋으세요 라고 공감해 주어야 해요.” (이상 면담대상자 2)
” 정말 인간대 인간으로 그냥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애가 고민을 얘기하면 정말 믿어주고... 인간적으로 대답을 해주면 나도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면담대상자 3)
” 성인상담의 경우에는 그 해결중심 요법으로 좀 다가가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잘 견뎌 왔냐 야 너 참 대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면담대상자 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기개입>
“극한상황에서는 내담자의 무조건적 공감을 통해 내담자의 카타르시스를 갖게 하는게 중요하다. “ (면담대상자 1)
“그림 검사도 하고 또 문장완성형 검사하고 검사하는 내내 아이는 세상을 그만 살고 싶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때 위기개입을 한거지요. 치료의 구조화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구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면서 얘를 끄집어내고 끄집어 낸 것을 다시 담아주고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했지요. “ (면담대상자 2)
“충분히 허용을 하되 정말 아니다 하는 것은 개입해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좀 실망들었구나 라든가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교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가고 있어요.” (면담대상자 4)

【미술 매체 활용】
“매체를 조금 잘 특성도 잘 아는 미술 전공자들이 조금 더 유리하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딱딱한 매체가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내담자를 만날 수도 있고 물론 매체가 필요한 대상자도 있고 그래요. “ (면담대상자 2)
“현장 상황에서 미술이다 보니까는 매체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 써야 돼요. 미술치료사라면 당황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게 뭔지 그리고 얘랑 어떤 놀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매치가 필요하지 알아야 하고, 자신감 있게 매체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담대상자 3)
“비전공자 경우 매체 다루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전공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매체는 어디에 써야 되고 이 매체의 성질이 뭔지를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대처능력도 뛰어나야 해요. 오늘 이걸 안하려고 하면 얼른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 같아요.” (면담대상자 4)
“미술 도구로 사용하는 반드시 미술에 관련된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그리고 못 그린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술에 관련해서 재료의 특성 그 다음에 색채적인 특성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면담대상자 5)

【그림 해석】
“작품을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내담자와 활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거 같아요. “ (면담대상자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라. 중재(치료)평가

중재(치료)평가 요인의 세부항목은 심리검사 이해, 심리검사 작성/활용, 심리검사 분석 등 3개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출되었다.

【심리검사 이해】
“심리를 파악하려면 심리분석, 검사도구 사용까지 다 알아야 하고, 사실 검사 도구 사용법 또는 매뉴얼도 잘 알아야 한다. 검사도구 사용이나 경험이 부족한 미술치료사는 잘못된 판단이나 점수를 내서 우울증이 아닌데 우울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면담대상자 2)

【심리검사 작성/활용】
“체크리스트 작성 등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 (면담대상자 2)

【심리검사 분석】
“자료분석을 잘 해야 돼요. 우울검사나 이런 것들은 분석을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적합한 합리적인 분석을 해야” (면담대상자 2)
“아동이 왔다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아동의 실행능력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능력이 중요해요.“ (면담대상자 5)

마. 행정/관리

행정/관리 요인의 세부항목은 보고서작성, 미술치료실 관리의 2개로 아래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출되었다.

【보고서 작성】
“미술치료사는 치료파일도 참 잘 써야 돼. 그날 치료하면 관찰일지... 관찰을 뭐를 했어. 이 아이랑 무슨 대화를 했어 이런 거를 활동일지에 써야 돼요. 내가 뭐 했지 그 파일이 있으면 꺼내 놔 이거 작업 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가봐야지 이렇게 좀 계획도 세워지고 하거든요.” (면담대상자 2)
“일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요. 왜냐면 뒷장에 아이들의 행동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행동수정기법 또 알아야 되고, 치료사들이 잘 모르거든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바우처 관련된 직무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몇 시간에 언제 결제를 해야 되고 요구하는 양식도 달라요. “ (이상 면담대상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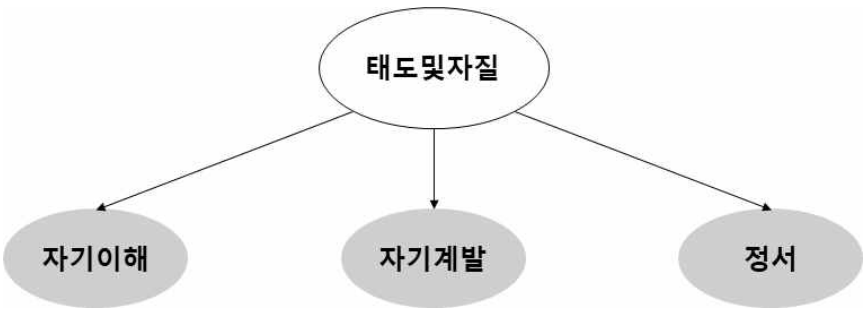
【미술치료실 관리】

“자신의 치료실 방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 (면담대상자 5)

미술치료실 관리 항목은 인터뷰 내용이 거의 없었지만, 기존 미술치료사 직무분석 연구(최선남 등, 2018)에서 미술매체구입 및 관리, 미술작품보관처리 항목으로 구성된 미술치료실 관리능력 요인이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도 행정/관리 요인의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3.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 도출

개발된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에서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은 <그림 4-4>와 같고, 조작적 정의는 <표 4-5>와 같다.



<그림 4-4> 도출된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

<표 4-5> 미술치료사의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 및 정의

역량 군	역량요인	조작적 정의
태도 및 자질	자기이해	치료사 자신에 대한 자각과 조절 능력
	자기계발	우수한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한 경험 및 활동
	정서	우수한 미술치료사가 가지는 정서

상기한 <표 4-5>에 제시한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들은 다음에 제시한 <표 4-6>의 세부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6> 미술치료사의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별 세부항목 및 정의(1차)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자기이해	자기성찰 및 수용	지속적으로 치료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수용하는 능력
	자기치료 및 조절	치료사 자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
자기계발	임상경험	지속적인 임상경험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능력
	네트워크	타분야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및 팀활동 능력
	연구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능력
정서	열정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미술치료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신념과 사명감
	인내심	내담자가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자신감	내담자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스킬에 대한 자신감
	도덕성	내담자에게 모범을 보이는 도덕적 품성과 언행
	지도력	내담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

가. 자기이해

자기이해 요인의 세부항목은 자기성찰 및 수용, 자기치료 및 조절 2개로 아래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출되었다.

【자기성찰 및 수용】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힘들면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하면 치료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할 수 있는 나만의 그런 방법도 찾아가야 되고 스트레스도 나름대로 조절을 잘해야 되고...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걸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도 나름 이렇게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같아요.“ (면담대상자 3)

【자기치료 및 조절】

“미술심리상담을 잘 하는 사람은 자기치료가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치료가 잘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또 역전이는 당연히 중간중간 일어나요. 나랑 똑같은 어떤 경험을 한 임상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했던 방식을 내담자한테 나 이렇게 봤는데 잘 됐어. 너도 이렇게 봐라고 피드백을 주게 되거든요.” (면담대상자 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자기계발

자기계발 요인의 세부항목은 임상경험, 네트워크, 연구의 3개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출되었다.

【임상경험】
“최소한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한다. 내담자가 연필을 잡지 못하거나, 듣지도 보지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담자를 미리 가서 행복재활원이나 보육원에 가서 사전에 만나보고 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 (면담대상자 2)
“2년 동안 자격증 따고 대학원 졸업해서 취업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능력이 안돼요. 임상경험이 필요해요. “ (면담대상자 5)

【네트워크】
네트워크 항목은 인터뷰 내용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기존 미술치료사 직무분석 연구(최선남 등, 2018)에 치료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팀작업능력이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도 네트워크를 자기계발 요인의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연구】
“제가 봤을 때는 심리를 잘 해야 되는 직업인데 바로 투입될 수 있지 않은데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직업 그죠. “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 (이상 면담대상자 5)

다. 정서

정서 요인의 세부항목은 열정, 인내심, 자신감, 도덕성, 지도력 등 5개로 아래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출되었다.

【열정】
“흥미롭고 재미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앞에서 아무것도 못 줬어요. 그러면 나 혼자 앞에서 쇼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치료기법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도 하고... “
“어려운 대상자가 오면 논문을 먼저 찾아 봐요. 대상관계 이론에 해당되는 건지? 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치료를 할 때 그럼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는거죠. “ (면담대상자 2)

“그 아이의 고민을 제가 가져와야죠. 그래서 같이 뭔가 협력해서 뭔가 사역도 해 보고 “

“내가 만족이 안 되면 그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막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안쓰고 몰입하고 하루종일 그런 거만 보고 있고... “

“너무 즐겁게 일하고 애들 막 네가 내 사랑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거든요. 좋아요 재밌어요. “ (이상 면담대상자 3)

“짧은 기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 (면담대상자 5)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요. 또 저는 미술 심리치료를 좀 재밌게 하는데 목표를 둬요. 이제 그 순간 행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해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해요. “ (면담대상자 6)

【인내심】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 였다면 치료 사였다면 아마 그 3개월을 못 버티고 아이한테 문제가 없어 아니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라고 포기했어. “ (면담대상자 2)

【자신감】

“치료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죠.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자기 함정에 안 빠지거든요. “ (면담대상자 2)

【도덕성】

“도덕적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 그래야 내담자한테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줄 때 좋은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

“품행장애를 알고 있는 친구를 치료할 때, 분명히 또 더 확고한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내가 피드백을 적절하게 줄 수 있어요.” (이상 면담대상자 2)

【지도력】

“굉장히 앉는 자세가 불량했어요. 다리 이렇게 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 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안 하면 척추가 이렇게 떨어지고 얼굴도 다 틀어져.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르게 앉는단다고 했죠. “ (면담대상자 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의 타당성 검증

문헌고찰과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구안한 예비 역량모델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12명의 우수한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조사하였다. 델파이조사 설문 응답률은 12명 모두 조사에 응하여 100%였다. 델파이조사에서는 예비 역량모델의 구성요소인 역량요인과 세부항목에 대한 명칭과 정의의 타당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타당하다(5점)'로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에게 추가할 역량이나 수정이 필요한 의견이 있다면 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결과를 분석하여 응답 평균이 4 미만이거나, CVR값이 .56 미만인 항목은 삭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요인 및 항목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다.

1. 이론지식 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결과

이론지식 역량모델은 심리치료지식, 미술지식, 장애/특수교육지식, 윤리적/법적지식 등 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고, 델파이조사 결과 나타난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이론지식 역량모델의 세부항목 타당성 검증 결과

역량군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편차	CVR	최빈값
이론 지식	심리치료지식	상담과 심리학 분야 지식	4.58	0.67	0.83	5
	미술지식	미술관련 전문지식	4.33	0.78	0.67	5
	장애/특수 교육지식	장애인과 특수교육 전문지식	4.42	0.67	0.83	5
	윤리적/법적지식	심리상담 관련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	4.67	0.49	1.00	5

<표 4-7>에 의하면, 이론지식 역량모델의 세부항목인 심리치료지식, 미술지식, 장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특수교육지식, 윤리적/법적지식은 모두 평균이 4.0을 초과하여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타당성 지수인 CVR도 델파이조사 대상자가 12명일 때 최소값의 기준인 0.56을 모두 초과하여 4개의 세부항목이 이론지식 역량 군으로 타당하고 각 항목의 정의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없어 모두 동의하였다.

2. 직무수행 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결과

가. 역량요인의 타당성 검증 결과(직무수행 역량군)

직무수행 역량요인은 내담자파악, 중재(치료)계획, 중재(치료)활동, 중재(치료)평가, 행정/관리 등 5개의 역량요인으로 구성되었고, 델파이조사 결과로 나타난 역량요인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직무수행 역량요인의 타당성 검증 결과

역량군	역량요인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편차	CVR	최빈값
직무수행	내담자파악	미술치료 전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	4.67	0.49	1.00	5
	중재(치료)계획	내담자의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4.50	0.52	1.00	4, 5
	중재(치료)활동	상담과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내담자를 치료하는 능력	4.50	0.52	1.00	4, 5
	중재(치료)평가	미술치료 후 내담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능력	4.42	0.67	0.83	5
	행정/관리	내담자 치료와 관련된 행정업무능력	3.92	0.79	0.33	4

<표 4-8>에 의하면, 직무수행 역량군의 역량요인 5개 중 내담자파악, 중재계획, 중재활동, 중재평가 요인들은 모두 평균이 4.0을 초과하였고, CVR 값도 기준값인 0.56을 초과하여 직무수행 역량군의 구성 요인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관리 역량요인은 평균 3.92로 4.0 미만이었고, CVR 값도 0.33으로 기준 0.56보다 낮아 직무수행 역량군으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관리 요인의 삭제를 고려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내담자파악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내담자파악은 내담자수용, 내담자관찰, 내담자정보파악, 내담자특성분석/판단, 치료부적합내담자대처, 부모상담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조사 결과로 나타난 내담자파악 세부항목들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내담자파악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역량 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편차	CVR	최빈값
내담자파악	내담자 수용	내담자의 주호소, 욕구, 심각정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담자에게 신뢰를 주는 능력	4.50	0.67	0.93	5
	내담자 관찰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내담자의 특성을 통찰력 있게 파악하는 능력	4.58	0.67	0.83	5
	내담자 정보파악	내담자의 배경과 사전검사 결과를 통해 내담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는 능력	4.58	0.51	1.00	5
	내담자 특성 분석/판단	내담자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치료목표와 방법을 설정하는 능력	4.50	0.67	0.83	5
	치료부적합 내담자대처	내담자와 공감 형성이 어려워 치료가 어려운 특성을 가진 내담자를 거절하고 타 치료사로의 연계를 결정하는 능력	4.25	0.87	0.50	5
	부모상담	내담자의 부모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상담능력	4.42	0.67	0.83	4, 5

<표 4-9>에 의하면, 직무수행 역량군의 내담자파악 요인의 세부항목들 중 치료부적합내담자대처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의 평균은 모두 4.0을 초과하였고, CVR 값도 기준값 0.56을 초과하여 내담자파악 역량요인의 구성 항목으로 타당하였다. 하지만, 치료부적합내담자대처 항목은 평균이 4.25로 4.0 이상이었지만 CVR 값이 0.50으로 기준값보다 낮아 내담자파악 요인으로 적합한 구성 항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부적합내담자대처 세부항목의 삭제를 고려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중재(치료)계획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중재(치료)계획은 목표설정, 계획수립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조사 결과로 나타난 중재(치료)계획 세부항목들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중재(치료)계획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역량 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 편차	CVR	최빈값
중재 (치료) 계획	목표설정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4.58	0.51	1.00	5
	계획수립	내담자의 치료 목표를 위해 치료 방법 및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4.42	0.67	0.83	5

<표 4-10>에 의하면, 직무수행 역량군의 중재(치료)계획 요인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항목들은 모두 평균 4.0을 초과하였고, CVR 값도 1.00, 0.83으로 기준값 0.56을 초과하여 중재(치료)계획 역량요인의 구성 항목으로 타당하였다.

라. 중재(치료)활동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중재(치료)활동 요인은 상담활용, 대화, 표현, 듣기, 맞춤형상담, 공감(상호작용), 위기개입, 미술매체활용, 그림해석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조사 결과로 나타난 중재(치료)활동 세부항목들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중재(치료)활동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역량 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 편차	CVR	최빈값
중재 (치료) 활동	상담활용	다양한 상담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내담자를 치료하는 능력	4.42	0.67	0.83	5
	대화	내담자가 친밀감을 갖도록 대화하는 능력	4.67	0.49	1.00	5
	표현	내담자의 마음을 이끌어 내도록 진솔하게 표현하여 상담하는 능력	4.67	0.49	1.00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량 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 편차	CVR	최빈값
	듣기	내담자가 편안한 상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들어주는 능력	4.58	0.51	1.00	5
	맞춤형 상담	내담자만의 고유한 특성과 상황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는 능력	4.58	0.67	0.83	5
	공감	내담자가 내면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내담자를 기다려주고 도와주면서 인간적인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능력	4.83	0.39	1.00	5
	위기개입	내담자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는 능력	4.67	0.65	0.83	5
	미술매체 활용	다양한 미술매체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알고, 내담자에 적절한 미술매체를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4.58	0.67	0.83	5
	그림해석	내담자의 그림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치료활동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능력	4.50	0.67	0.83	5

<표 4-11>에 의하면, 직무수행 역량군의 중재(치료)활동 요인의 세부항목들은 모두 평균 4.0을 초과하였고, CVR 값도 기준값 0.56을 초과하여 중재(치료)활동 역량요인의 구성 항목으로 타당하였다.

마. 중재(치료)평가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중재(치료)평가 요인은 심리검사이해, 심리검사작성/활용, 심리검사분석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조사 결과로 나타난 중재(치료)평가 세부항목들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중재(치료)평가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역량 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 편차	CVR	최빈 값
중재 (치료) 평가	심리검사 이해	심리검사 관련 전문지식	4.42	0.67	0.83	5
	심리검사 작성/활용	심리검사를 개발하거나 기존 심리검사를 수정하여 활용하는 능력	4.17	0.72	0.83	4
	심리검사 분석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4.50	0.67	0.83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2>에 의하면, 직무수행 역량군의 중재(치료)평가 요인의 세부항목들은 모두 평균 4.0을 초과하였고, CVR 값도 기준값 0.56을 초과하여 중재(치료)평가 역량요인의 구성 항목으로 타당하였다.

바. 행정/관리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행정/관리 요인은 보고서작성, 미술치료실관리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조사 결과로 나타난 행정/관리 세부항목들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행정/관리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역량 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 편차	CVR	최빈 값
행정/ 관리	보고서작성	관찰일지나 치료일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4.00	0.95	0.83	4, 5
	미술치료실 관리	미술매체 구입과 관리, 미술작품의 보관 능력	4.00	1.04	0.33	5

<표 4-13>에 의하면, 직무수행 역량군의 행정/관리 요인의 보고서작성과 미술치료실 관리 항목은 평균이 4.00으로 기준을 만족하였고, CVR 값은 0.83, 0.33으로 보고서작성 항목만 기준을 통과하였다. 미술치료실관리 항목은 2점부터 5점까지 측정되어 변산도가 크게 나타났고, CVR 값이 기준 0.56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삭제를 고려하였다. 미술치료실관리 항목이 삭제될 경우 보고서작성 항목 하나만으로 행정/관리 요인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보고서작성 항목을 중재(치료)활동 요인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직무수행 역량요인과 세부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패널들의 개방형 의견으로 내담자파악 요인에 환경탐색 및 파악 항목 추가, 중재활동 요인에 격려 항목 추가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의 개방형 의견은 기존 도출된 역량요인과 세부항목과 유사하여 도출된 내용의 수정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3. 태도 및 자질 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결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태도 및 자질 역량요인의 타당성 검증 결과

태도 및 자질 역량군은 자기이해, 자기계발, 정서의 3개 역량요인으로 구성되었고, 델파이조사 결과로 나타난 역량요인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14>와 같다.

<표 4-14> 역량요인의 타당성 검증 결과(태도 및 자질 역량 군)

역량군	역량요인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편차	CVR	최빈값
태도 및 자질	자기이해	치료사 자신에 대한 자각과 조절 능력	4.42	0.67	0.83	4, 5
	자기계발	우수한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한 경험 및 활동	4.67	0.49	1.00	5
	정서	우수한 미술치료사가 가지는 정서	4.50	0.52	1.00	4, 5

<표 4-14>에 의하면, 태도 및 자질 역량군의 역량요인은 모두 평균이 4.0을 초과하였고, CVR 값도 기준값인 0.56을 초과하여 태도 및 자질 역량군의 구성 요인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기이해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자기이해 요인은 자기성찰 및 수용, 자기치료 및 조절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조사 결과로 나타난 자기이해 세부항목들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15>와 같다.

<표 4-15> 자기이해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편차	CVR	최빈값
자기이해	자기성찰 및 수용	지속적으로 치료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수용하는 능력	4.58	0.51	1.00	5
	자기치료 및 조절	치료사 자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	4.50	0.67	0.83	5

<표 4-15>에 의하면, 자기이해 역량요인의 세부항목들은 모두 평균 4.0을 초과하였고, CVR 값도 기준값 0.56을 초과하여 자기이해 요인의 구성 항목으로 타당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자기계발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자기계발 요인은 임상경험, 네트워크, 연구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조사 결과로 나타난 자기계발 세부항목들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16>과 같다.

<표 4-16> 자기계발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역량 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 편차	CVR	최빈 값
자기 계발	임상경험	지속적인 임상경험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능력	4.75	0.45	1.00	5
	네트워크	타분야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및 팀활동 능력	4.50	0.67	0.83	5
	연구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능력	4.67	0.49	1.00	5

<표 4-16>에 의하면, 자기계발 요인의 세부항목들은 모두 평균 4.0을 초과하였고, CVR 값도 기준값 0.56을 초과하여 자기계발 역량요인의 구성 항목으로 타당하였다.

라. 정서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정서 요인은 열정, 인내심, 자신감, 도덕성, 지도력 등 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조사 결과로 나타난 정서 요인의 세부항목들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17>과 같다.

<표 4-17>에 의하면, 정서 요인의 세부항목들은 모두 평균 4.0을 초과하였고, CVR 값도 기준값 0.56을 초과하여 정서 역량요인의 구성 항목으로 타당하였다. 태도 및 자질 역량군의 역량요인과 세부항목의 타당성과 정의에 대한 개방형 의견으로는 자기계발 요인에 교육과 슈퍼비전 항목을 추가, 정서 요인에 수용성 추가 의견이 있었다.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교육과 슈퍼비전에 대한 노력은 열정과 유사한 항목으로, 수용성은 인내심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를 고려하지 않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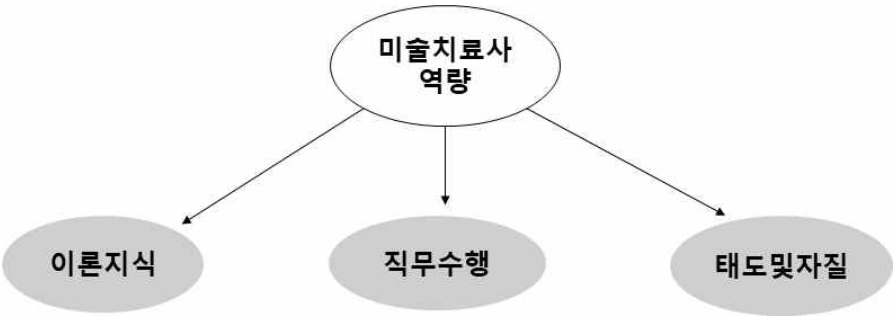
<표 4-17> 정서 세부항목의 타당성 검증 결과

역량 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 편차	CVR	최빈 값
정서	열정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미술치료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신념과 사명감	4.67	0.49	1.00	5
	인내심	내담자가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4.75	0.45	1.00	5
	자신감	내담자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스킬에 대한 자신감	4.50	0.67	0.83	5
	도덕성	내담자에게 모범을 보이는 도덕적 품성과 언행	4.58	0.67	0.83	5
	지도력	내담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	4.33	0.78	0.67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미술치료사 예비 역량모델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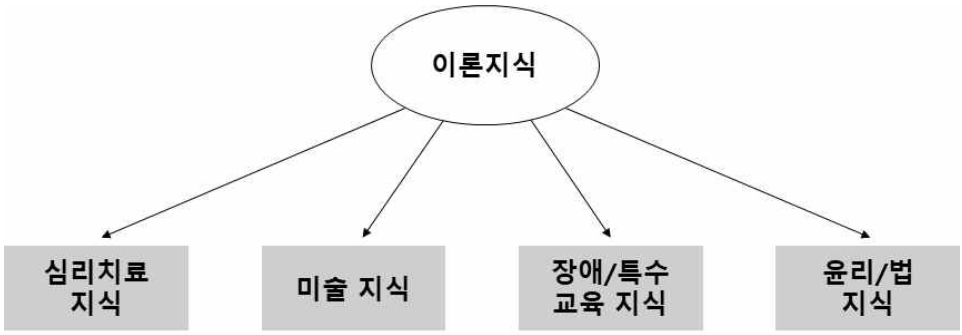
델파이조사를 통해 나타난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을 완성하였다. 역량요인과 세부항목의 타당한 정도의 평균이 4.0 미만이거나 CVR 값이 0.56 미만일 경우 해당 요인이나 항목은 삭제하였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기준에 미달하고 최빈값이 매우타당하다(5점)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전문가의 의견들이 중요한 역량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에는 유지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미술치료사의 역량모델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5> 완성된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

1. 이론지식 예비 역량모델 완성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론지식 역량모델은 <그림 4-2>와 같고, 역량요인의 세부항목과 정의는 <표 4-18>과 같다.



<그림 4-6> 완성된 이론지식 역량모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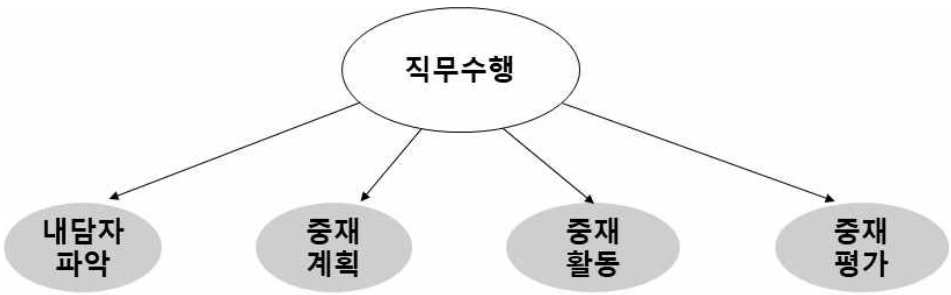
<표 4-18> 이론지식 역량모델의 세부항목 및 정의

역량 군	역량요인	조작적 정의
이론지식	심리치료지식	상담과 심리학 분야 지식
	미술지식	미술관련 전문지식
	장애/특수교육지식	장애인과 특수교육 전문지식
	윤리적/법적지식	심리상담 관련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

<표 4-18>에 의하면, 타당성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한 이론지식 역량요인의 세부항목은 심리치료지식, 미술지식, 장애/특수교육지식, 윤리적/법적지식의 4개 항목이었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이론지식 역량으로 심리치료지식, 미술지식, 장애/특수교육지식, 윤리적/법적지식 항목을 결정하였다.

2. 직무수행 예비 역량모델 완성

최종적으로 완성된 직무수행 역량모델은 <그림 5-3>과 같고, 역량요인과 정의는 <표 4-19>와 같다.



<그림 4-7> 완성된 직무수행 예비 역량모델

<표 4-19> 직무수행 역량모델의 역량요인 및 정의

역량 군	역량요인	조작적 정의
직무수행	내담자파악	미술치료 전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
	중재(치료)계획	내담자의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중재(치료)활동	상담과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내담자를 치료하는 능력
	중재(치료)평가	미술치료 후 내담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능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9>에 의하면, 타당성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한 직무수행 역량모델의 역량요인은 내담자파악, 중재(치료)계획, 중재(치료)활동, 중재(치료)평가의 4개로 나타났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직무수행 역량요인으로 내담자파악, 중재(치료)계획, 중재(치료)활동, 중재(치료)평가의 4개를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직무수행 역량요인별 세부항목과 정의는 <표 4-20>, <표 4-21>, <표 4-22>, <표 4-23>과 같다.

<표 4-20> 내담자파악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내담자파악	내담자수용	내담자의 주호소, 욕구, 심각정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담자에게 신뢰를 주는 능력
	내담자관찰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내담자의 특성을 통찰력 있게 파악하는 능력
	내담자정보파악	내담자의 배경과 사전검사 결과를 통해 내담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는 능력
	내담자특성 분석/판단	내담자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치료목표와 방법을 설정하는 능력
	치료부적합 내담자대처	내담자와 공감 형성이 어려워 치료가 어려운 특성을 가진 내담자를 거절하고 타 치료사로의 연계를 결정하는 능력
	부모상담	내담자의 부모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상담능력

<표 4-20>에 의하면, 타당성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한 직무수행 역량요인의 내담자파악 세부항목은 내담자수용, 내담자관찰, 내담자정보파악, 내담자특성분석/판단, 부모상담의 5개로 나타났다. 치료부적합내담자 고려 항목은 CVR 값이 0.50으로 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하였지만 타당성 평균이 4.25로 높았고 전문가들의 개방질문에 대한 의견도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직무수행 역량의 내담자파악 항목으로 내담자수용, 내담자관찰, 내담자정보파악, 내담자특성분석/판단, 부모상담, 치료부적합내담자대처의 6개를 결정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1> 중재(치료)계획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중재(치료)계획	목표설정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계획수립	내담자의 치료 목표를 위해 치료 방법 및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표 4-21>에 의하면, 직무수행 역량요인의 중재(치료)계획은 모두 타당성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직무수행 역량의 중재(치료)계획 요인의 세부항목으로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의 2개를 결정하였다.

<표 4-22> 중재(치료)활동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중재(치료)활동	상담활용	다양한 상담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내담자를 치료하는 능력
	대화	내담자가 친밀감을 갖도록 대화하는 능력
	표현	내담자의 마음을 이끌어 내도록 진솔하게 표현하여 상담하는 능력
	듣기	내담자가 편안한 상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들어주는 능력
	맞춤형 상담	내담자만의 고유한 특성과 상황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는 능력
	공감	내담자가 내면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내담자를 기다려주고 도와주면서 인간적인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능력
	위기개입	내담자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는 능력
	미술매체활용	다양한 미술매체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알고, 내담자에 적절한 미술매체를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림해석	내담자의 그림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치료활동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능력
	보고서작성	관찰일지나 치료일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2>에 의하면, 직무수행 역량요인의 중재(치료)활동 요인은 기존 9개 세부항목 모두 타당성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추가로 보고서작성 항목은 최초 역량모델 구안 시 행정/관리 역량요인에 포함하였으나 행정/관리 요인이 타당성 기준 미달로 삭제되어 중재(치료)활동 요인으로 이동하여 포함하였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직무수행 역량의 중재(치료)활동 요인의 세부항목은 상담활용, 대화, 표현, 듣기, 맞춤형상담, 공감, 위기개입, 미술매체활용, 그림해석, 보고서작성의 10개로 결정하였다.

<표 4-23> 중재(치료)평가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중재 (치료)평가	심리검사 이해	심리검사 관련 전문지식
	심리검사 작성/활용	심리검사를 개발하거나 기존 심리검사를 수정하여 활용하는 능력
	심리검사분석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표 4-23>에 의하면, 직무수행 역량요인의 중재(치료)평가 요인은 세부항목 모두 타당성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직무수행 역량의 중재(치료)평가 요인의 세부항목은 심리검사이해, 심리검사작성/활용, 심리검사분석의 3개로 결정하였다.

3. 태도 및 자질 예비 역량모델 완성

최종적으로 완성된 태도 및 자질 역량모델은 <그림 4-4>와 같고, 역량요인과 정의는 <표 4-24>와 같다.

<그림 4-8> 완성된 태도 및 자질 역량모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4> 태도 및 자질 역량모델의 역량요인과 정의

역량 군	역량요인	조작적 정의
자질 및 태도	자기이해	치료사 자신에 대한 자각과 조절 능력
	자기계발	우수한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한 경험 및 활동
	정서	우수한 미술치료사가 가지는 정서

<표 4-24>에 의하면, 태도 및 자질 역량모델의 하위 역량요인들은 모두 타당성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태도 및 자질 역량군의 역량요인은 자기이해, 자기계발, 정서의 3개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태도 및 자질 역량모델의 역량요인별 세부항목과 정의는 <표 4-25>, <표 4-26>, <표 4-27>과 같다.

<표 4-25> 자기이해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자기이해	자기성찰 및 수용	지속적으로 치료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수용하는 능력
	자기치료 및 조절	치료사 자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

<표 4-25>에 의하면, 자기이해 역량요인의 세부항목은 모두 타당성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태도 및 자질 역량의 자기이해 역량요인의 세부항목은 자기성찰 및 수용, 자기치료 및 조절의 2개로 결정하였다.

<표 4-26> 자기계발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편차	CVR	최빈값
자기계발	임상경험	지속적인 임상경험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능력	4.75	0.45	1.00	5
	네트워크	타분야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및 팀활동 능력	4.50	0.67	0.83	5
	연구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능력	4.67	0.49	1.00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6>에 의하면, 자기계발 역량요인의 세부항목은 모두 타당성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태도 및 자질 역량의 자기계발 역량요인의 세부항목은 임상경험, 네트워크, 연구의 3개로 결정하였다.

<표 4-27> 정서 역량요인의 세부항목 및 정의

역량요인	세부항목	조작적 정의
정서	열정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미술치료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신념과 사명감
	인내심	내담자가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자신감	내담자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스킬에 대한 자신감
	도덕성	내담자에게 모범을 보이는 도덕적 품성과 언행
	지도력	내담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

<표 4-27>에 의하면, 정서 역량요인의 세부항목은 모두 타당성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태도 및 자질 역량의 정서 역량요인의 세부항목은 열정, 인내심, 자신감, 도덕성, 지도력의 5개로 결정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장 논의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고찰과 우수한 미술치료사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역량요인과 세부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집단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미술치료사의 역량요인과 세부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역량모델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미술치료사의 예비 역량모델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역량을 이론지식, 직무수행, 태도 및 자질의 3개 역량 군으로 구분하였고, 역량 군별로 역량요인과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3개의 역량 군으로 미술치료사의 역량을 구분한 것은 미술치료사의 역량 관련 선행연구들에 기초한 것이다. Wadeson(1987)은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의 두 가지를 주장하였고, 전문적 자질에는 미술치료 이론, 정신병리, 장애,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등 폭넓은 지식을 갖는 것과 미술매체사용기법, 내담자와 소통능력 등 미술을 통한 내담자 치료와 관련된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인성적 자질로는 겸손, 인내, 열정, 자기신뢰, 자기수용, 공감 등의 태도 및 자질 과 관련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즉, Wadeson(1987)의 제안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술치료사의 역량은 이론지식, 직무수행, 태도 및 자질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사의 직무를 분석했던 최선남 등(2013)의 연구에서도 미술치료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내담자 치료 능력’, ‘행정적 능력’, ‘치료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미술매체에 대한 창조성과 유연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민감성’ 등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론지식, 직무수행 역량 군과 유사하였다. 또한, 최선남 등(2013)은 ‘미술치료사 자질향상과 성장을 위한 자각 필요’ 항목이 미술치료사에게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태도 및 자질 역량군과 유사한 것이다. 초보 미술치료사의 직무를 연구했던 안승희와 전순영(2018)도 지식, 기술, 태도의 3개 역량 주제를 미술치료사의 직무로 제안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3개 역량군과 유사하였다.

미술치료 이외에 타 분야의 인적자원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많았다. 기업의 서비스나 관리직의 역량 연구에서도 지식, 기술 또는 직무, 태도 및 자질의 3개 역량 군으로 구분하였다. 김미영(2013)은 비서의 직무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범주화하였고, 박신윤과 이찬(2011)은 최고경영자 역량을 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직무, 리더로 구분하여 본 연구의 3개 역량군과 유사하였다. 상담자의 역량을 연구했던 남현주(2014)는 상담자의 역량으로 이론지식, 태도·개인자질, 직무수행을 도출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미술치료사의 이론지식 역량군의 세부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치료지식, 미술지식, 장애/특수교육지식, 윤리적/법적지식의 4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론지식 역량군의 세부항목들에 대해 전문가 내용타당성 검증 결과 5점척도에서 4.33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보미술치료사의 직무를 분석한 안승희와 전순영(2018)은 지식적 역량으로 치료사의 자기이해 항목을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경우 태도 및 자질 역량 군에서 도출된 자기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달랐다. 안승희와 전순영(2018)에서는 우수한 미술치료사의 역량을 도출하고자 했던 본 연구와 다르게 초보 미술치료사들의 어려움과 직무를 분석한 것으로 초보 미술치료사가 내담자 수용을 위한 자기분석, 자기분석을 통한 자기치유와 타인수용, 내면 성장과 내담자 치료를 위한 자기치유 등의 지식적 차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상담사의 역량모형을 개발한 조수연과 양미진(2013)의 연구에서 도출된 역량의 세부항목 중 상담지식, 심리검사 이해, 내담자이해, 윤리 등은 본 연구의 이론지식 역량군의 세부항목들과 유사한 것이다.

미술치료사 직무수행 역량군의 역량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파악, 중재(치료)계획, 중재(치료)활동, 중재(치료)평가를 도출하였고, 4개 역량요인의 전문가집단 내용타당성 평균은 4.42(5점척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 직무수행 역량이 미술치료사에게 중요한 역량임이 확인되었다. 조수연과 양미진(2013)의 청소년상담사 역량 연구에서 도출한 역량요인들 중 상담과 일반 역량 군을 구성하는 상담전략 및 기술, 사례관리, 심리검사, 의사소통 등은 본 연구의 직무수행 역량요인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보미술치료사의 역량(안승희, 전순영, 2018) 연구에서는 기술적 역량군의 문제해결위한 환경제공, 검사해석 및 마음공감의 직관력, 전문가네트워크 관련 전문성 등의 요인이 도출되어 본 연구의 직무수행 역량요인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술치료사 양성을 위한 직무분석 연구(최선남 등, 2018)에서 미술치료사의 구체적 능력으로 도출되었던 내담자치료능력, 행정능력, 전문가네트워크,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미술매체 창조성과 유연성 등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내담자파악과 중재(치료)계획, 활동, 평가의 역량요인과 동일한 것이다. 김갑숙 등(2018)은 치료 및 연구능력, 중재, 전문적 역량 등을 미술치료사의 역할로 제시하여 본 연구의 직무수행 영역의 역량요인들과 유사하였다.

세부항목으로 내담자파악 요인은 내담자수용, 관찰, 정보파악, 특성분석/판단, 치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적합내담자대처, 부모상담의 6개로 전문가집단 내용타당성 평균이 모두 4.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담자파악은 미술치료를 위한 내담자를 파악하는 단계로 최선남 등(2018)이 도출한 미술치료사의 내담자를 치료하는 능력으로 사전 심리검사 능력, 내담자문제 분석 등의 항목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초보 미술치료사의 역량 연구(안승희, 전순영, 2018)에서 내담자 특성 이해, 수용력, 마음 이끌어내는 리더십 항목들은 본 연구의 내담자수용, 관찰, 정보파악, 특성분석/판단 항목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중재(치료)계획 요인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항목의 전문가집단 내용타당성 평균은 4.42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선남 등(2018)의 연구에서 미술치료계획서 작성 능력을 언급하면서 행정능력으로 도출하였고, 내담자치료능력에서 목표와 치료적 개입 수립, 미술치료적 개임 목표와 전략 수립을 언급하여 본 연구의 계획수립 항목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중재(치료)계획 요인의 항목들은 기존 선행연구들(안승희, 전순영, 2018; 조수연, 양미진)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재(치료)활동에 중재(치료)계획의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도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재(치료)활동 요인의 10개 세부항목들은 보고서작성(4.00)을 제외하고 모두 전문가집단의 내용타당성 평균이 4.42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재활동 요인의 항목들은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최선남 등(2018)은 내담자치료능력으로 내담자문제분석 및 계획대로 치료 진행, 안정적 치료환경제공, 전략에 따른 미술치료 수행, 보고서 작성 능력, 전문가네트워크,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등의 항목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김갑숙 등(2018)의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역할로 치료개입능력, 미술활용능력, 관계 맺기 능력 등이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청소년상담사 역량(조수연, 양미진, 2013)에서 상담전략 및 기술, 사례관리, 위기관리, 행정실무, 네트워크구축 및 활용 항목은 본 연구와 유사하였지만, 경영과 교육 역량군의 항목들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치료사가 청소년상담사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경영과 교육 영역까지 미술치료사의 역량에 포함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직무수행의 중재(치료)평가 역량요인의 세부항목은 심리검사 이해, 작성/활용, 분석 등으로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도출되었다. 심리검사와 관련된 항목이 도출되었던 연구들은 청소년상담사의 역량(조수연, 양미진, 2013)에서 심리검사 이해 및 활용 항목이 있었고, 김갑숙 등(2018)의 연구에서는 심리평가가 미술치료사의 역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할 항목이었다. 최선남 등(2018)의 연구에서는 심리검사 관련된 항목의 언급이 없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역량을 도출한 것과 다른 게 최선남 등(2018)은 미술치료사의 직무를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태도 및 자질 역량군의 하위역량으로 자기이해, 자기계발, 정서가 도출되었는데, 이 역량요인들은 모두 전문가집단의 내용타당성 평균이 4.42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태도 및 자질 역량이 미술치료사에게 중요한 역량임이 확인되었다. 최선남 등(2018)은 미술치료사의 직무분석 연구에서 미술치료사 자질 향상과 성장을 위한 자각 필요 영역에서 정체성 유지, 미술치료사 자신에게 깨어있음의 필요 항목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자기이해, 자기계발과 유사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안승희와 전순영(2018)은 초보 미술치료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 태도적 역량으로 치료사 자신에 대한 격려와 치료사로서의 끊임없는 경험이라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자기이해 역량요인의 자기성찰 및 수용, 자기치료 및 조절, 임상경험 항목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계발의 하위항목으로 도출된 네트워크 항목은 안승희와 전순영(2018)의 연구에서 기술적 역량의 대외적 전문성 항목, 그리고 최선남 등(2018)의 미술치료사의 직무 중 구체적 능력으로 요구되는 치료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항목과 유사한 것이다. 본 연구의 자기계발의 하위항목 중 연구는 지속적인 내담자사례의 연구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사 역량모형(조수연, 양미진, 2013)에서 제안한 연구 역량군의 연구설계 및 수행, 연구보고서 작성 및 평가 항목과 동일한 것이고, 김갑숙 등(2018)의 연구에서 미술치료사의 역할로 도출된 사례연구와 유사한 것이다.

자질 및 태도 역량군의 정서 역량요인에는 열정, 인내심, 자신감, 도덕성, 지도력 등 5개의 세부항목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미술치료사의 역량요인과 세부항목들에 대해 미술치료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타당성이 높은 미술치료사의 역량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역량, 직무분석 관련 선행연구(김갑숙, 이근매, 정현희, 2018; 안승희, 전순영, 2018; 조수연, 양미진, 2013; 최명선, 2013; 최선남 등, 2018)와 현장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의 미술치료사 경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미술치료사 대상 심층면접을 토대로 구성된 역량을 미술치료 관련 석사수료 이상의 전문가집단에게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이론지식 역량군의 4개 세부항목, 직무수행 역량군의 4개 역량요인과 21개 세부항목, 자질 및 태도 역량군의 3개 역량요인과 10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예비 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미술치료사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공적인 내담자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미술치료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과정을 개발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상담사, 무용치료사 등과 같이 미술치료사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교육 및 연구 과정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미술치료사의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어 체계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교육과정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교육 및 연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미술치료사의 역량 및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소수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내용에 기초하여 개발된 예비 역량모델로, 향후 미술치료사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모델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예비 역량모델을 기초로 하여 미술치료사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미술치료사의 역량 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미술치료 영역의 전문가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미술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6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수한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도출하여 예비 역량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역량 군 3개, 역량요인 11개, 세부항목 35개로 구성된 예비 역량모델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미술치료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지식인 '이론지식' 역량, 미술치료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상황의 대처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기술인 '직무수행' 역량, 미술치료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미술치료사의 자질, 인성, 태도, 윤리 등 '태도 및 자질' 역량이다.

둘째, 이론지식 역량에서 요구되는 세부항목은 '심리치료지식', '미술지식', '장애/특수교육지식', 심리상담과 관련된 '윤리적/법적지식'이다.

셋째, 직무수행 역량을 구성하는 역량요인은 미술치료 절차에 따른 '내담자파악', '중재(치료)계획', '중재(치료)활동', '중재(치료)평가'이다.

넷째, '내담자파악' 역량요인은 '내담자수용', '내담자관찰', '내담자정보파악', '내담자특성분석/판단', '치료부적합내담자대처', '부모상담'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섯째, '중재(치료)계획' 역량요인은 '목표설정', '계획수립'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섯째, '중재(치료)활동' 역량요인은 '상담활용', '대화', '표현', '듣기', '맞춤형상담', '공감', '위기개입', '미술매체활용', '그림해석', '보고서작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일곱째, '중재(치료)평가' 역량요인은 '심리검사이해', '심리검사작성/활용', '심리검사분석'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덟째, 태도 및 자질 역량을 구성하는 역량요인은 '자기이해', '자기계발', '정서'이다.

아홉째, '자기이해' 역량요인은 '자기성찰 및 수용', '자기치료 및 조절' 항목으로 구성된다.

열 번째, '자기계발' 역량요인은 '임상경험', '네트워크', '연구' 항목으로 구성된다.

열한 번째, '정서' 역량요인은 '열정', '인내심', '자신감', '도덕성', '지도력'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 후속할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술치료사 역량모델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내용타당성 검증에 그쳤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근거한 증거, 외적구조의 관계 등을 통한 교차 타당화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미술치료사의 역량요인과 세부항목을 도출한 기초 연구로 예비 역량모델을 완성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미술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술치료사의 교육 및 연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후속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강윤숙, 이숙정, 김인지, 안금희(2008). 일반병동 간호사의 간호역량 평가도구 개발. 간호행정학회지, 14(3), 219-228.

김갑숙, 이근매, 정현희(2018). 미술치료사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미술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차이. 미술치료연구, 25(3), 289-305.

김소연(2012). 상담 과정에서의 실존적 관계 맺음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신애(2009). 전문상담교사 직무의 수행 빈도, 중요도, 곤란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인규, 조남정(2010). DACUM법을 활용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분석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97-115.

김진모(200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무역량 규명 : 학습지 기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8(2), 159-177.

김현숙, 봉형철(2010). 액션러닝코치의 역량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28(2), 53-80.

남현주(2014). 기업 내 상담자의 역량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HRD연구, 16(1), 169-206.

박경석 (2014). 초등교사의 체육수업반성과 교수역량 및 교수자신감의 인과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3(2), 855-863.

박신윤, 이찬(2011).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역량모델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43(1), 87-106.

박용호, 조대연, 배현경, 이해정(2012). 중등교사의 직무역량 요구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299-320.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청소년상담연구, 2010, 1-514.

백순근, 함은혜, 이재열, 신효정, 유예림 (2007). 중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8(1), 47-69.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6). 정신건강 종합대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명희(2014). 중등학교 학생부 교사의 역량모델링.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발표 자료집, 2014(1), 34-44.

심현옥, 강진희, 김은순, 서경완, 김승종(2011). 훈육관 역량모델 개발. 군진간호연구, 29(2), 53-65.

안금옥(2009). 전문상담교사 직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안보경, 정호원, 심인미, 김태형(2013). 심리상담사 직무분석. 서울: 한국자격중앙협회.

안승희, 전순영(2018). 초보 미술치료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역량. 예술심리치료연구, 14(3), 245-268.

양미진, 조수연, 이소엽(2012). 청소년상담사 개인 및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소진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0(1), 17-35.

오헌석(2007).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경영교육논총, 47, 191-213.

이대형 (2012). 좋은 체육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량 및 역할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281-307.

이종현(2005). 학교상담교사의 역할 및 직무분석.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이진희(2017). 생활무용 지도자의 전문성 척도개발. 한국무용과학회지, 34(2), 37-51.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은희관(2017). 스포츠 지도자 지도능력 개선을 위한 필요요인 탐색 :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학회지, 15(3), 169-179.

이대형 (2012). 좋은 체육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량 및 역할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281-307.

이주인(2000). 컴피턴시 인사모델. LG 주간경제 11월호.

이재경(2002).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에 대한 고찰: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 체계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18(4), 25-56.

이호훈(2017). 엑티브 에이징 실현을 위한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지도역량 우선순위 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5(1), 347-357.

이홍민(2009). 역량평가: 인적자본 역량모델 개발과 역량평가. 서울: 리드리드 출판.

임세라, 오가영(2015). 미술심리치료학. 파주: 이담books.

장미(2017). 청소년지도자의 직무역량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윤화(2004).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미술치료 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수연, 양미진(2013). 청소년상담사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2), 59-75.

조용태(2014). 우리나라 미술치료(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고. 미술치료연구, 21(6), 1163-1179.

진주현(2006). 표준역량모델 개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효정(2012). 놀이치료자의 내담아동과의 관계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추종호(2017). 체육지도자 자격개편에 따른 역량모델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성 검증. 한국스포츠학회지, 15(3), 639-648.

최명선(2013). 미술치료사의 전문가 되기 여정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선남, 최은영, 공마리아, 전영숙, 정여주, 조용태, 원희랑(2018). 미술치료사 양성을 위한 직무분석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5(5), 691-710.

한국자격중앙협회(2013). 심리상담사 직무분석. 서울: 한국자격중앙협회.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업표준사전. http://www.work.go.kr

한승완(2013).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혜정, 장연집(2012). 미술치료사의 미술작업을 통한 자기인식 체험 연구, 심리치료, 12(1), 49-74.

Boyatzis, R. E.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Y: John Wiley & Sons.

Corey, M. S. & Corey, G. (1989).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Cole.

Dubois, D. D.(1993). Competency-based performance improvement :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Change. HRD press, Inc.

Fish, B. J. (2008). Formative Evaluation Research of Art-Based Supervision in Art Therapy Training. Art Therapy: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25(2), 70-77.

Klemp, G. O.(1980). The assessment of occupational competence. Washington, D. C. :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Lucia, A. D. & Lepsinger, R.(1999). The Art and Science of Competency Models. Jossey-Bass/Pfeiffer, San Francisco.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McLagan, P. A. (1989). The models. In Models for HRD practice (Vol. 3). VA: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McMurray, M. & Schwartz-Mirman, O. (1998). Transference in art therapy: A new outlook. The Art in Psychotherapy, 25(1), 31-36.

McNiff, S. (2004). Art Heals: How Creativity Cures the Soul. Bonston: Shambhala.

Moon, B. L. (2003). Essential of Art Therapy Education and Practice. Spring, IL: Charles C Thomas.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New York: Wiley. 민병모, 박동건, 박종구, 정재창(역)(1998). 핵심역량 모델의 개발과 활용. PSI 컨설팅.

Wadeson, H. (2012). 임상미술치료학(장연집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Wadeson, H. (1987). The Dynamics of Art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장연집 역(2008). 미술심리치료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333.